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5 Outlook

March 2025

삼일PwC경영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민준선 대표
삼일PwC Deal 부문

들어가며

작년 초 M&A시장을 전망하면서 M&A시장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M&A 시장의 회복과는 달리 2024년 하반기에도 한국은 실물 경제의 부진, 높은 금리 수준의 장기화 및 밸류에이션 등에 대한 우려에 더해, 국내 정치 불안이 가중되면서 M&A 시장의 회복 시기 및 속도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 시점에서의 희망적 뉴스는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주체들의 적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트럼프 2.0 본격 개막에 따라 어떤 형태로든 정책 방향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고, 국내의 정치 혼란도 상반기 이후에는 점차 소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 3년간의 침체기 속에서 PE를 중심으로 한 시장주체들이 다양한 활로를 모색해 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AI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혁명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시장 주체들의 기존 포트폴리오 재점검과, 신성장동력에 대한 투자가 절실해지는 시점입니다. 본 보고서가 M&A를 준비하거나 계획 중인 PwC의 고객과 독자에게 풍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Agenda

Executive Summary	4
2024년 M&A 시장 Review	11
2025년 M&A 시장 전망	20
2025년 M&A 전략	26
산업별 M&A Trend 및 2025년 Outlook	36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5 Outlook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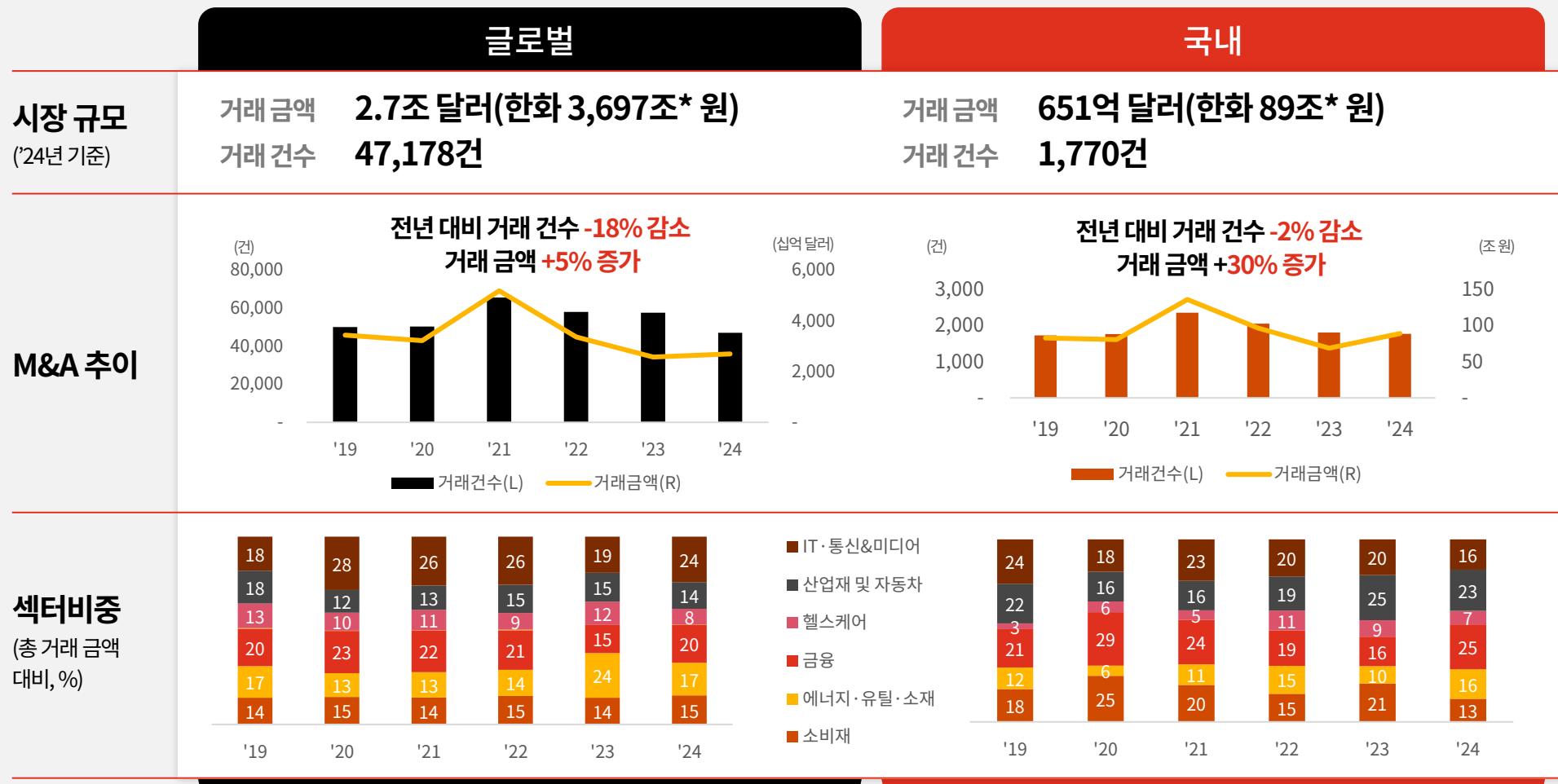


글로벌 트렌드의 변화: 독자적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시대



2024년 M&A 시장 Review

- (글로벌) '21년 고점 이후 거래 건수 감소 지속되나, 거래 금액은 대형 딜(10억 달러 이상 딜) 증가에 힘입어 회복 → M&A 시장 턴어라운드 기대감 점증
- (국내) 거래 금액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큰 폭 개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주축이 되어 계열 내 합병, 수익성 낮은 사업부 분사 및 PE 등에 매각 진행



*원/달러 환율: 1,367원 적용(연평균 기준)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5년 M&A 시장 전망

시장 전체

3년간 지속된 M&A 침체 속 시장 주체들의 돌파구 모색 → 하반기로 갈수록 M&A 시장 점진적 회복

- '24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과거와 같은 저금리 환경 기대는 어려운 상황. 또한 트럼프 2.0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우려
- **M&A에 비우호적 매크로 환경 장기화되며, 시장주체들의 다양한 돌파구 모색 진행**
 - 사모크레딧(Private Credit) 및 대체자산의 성장, 강달러 기반 미국 기업들의 Cross border 거래 증가 예상
 - AI 중심 기술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신사업 투자 및 기존 포트폴리오 조정 활발해질 전망

주요 투자 주체

기업

- 포트폴리오 조정(비핵심 자산 매각), 신성장 동력(신시장, AI 중심 신기술) 마련, 공급망 안정화에 관심

사모자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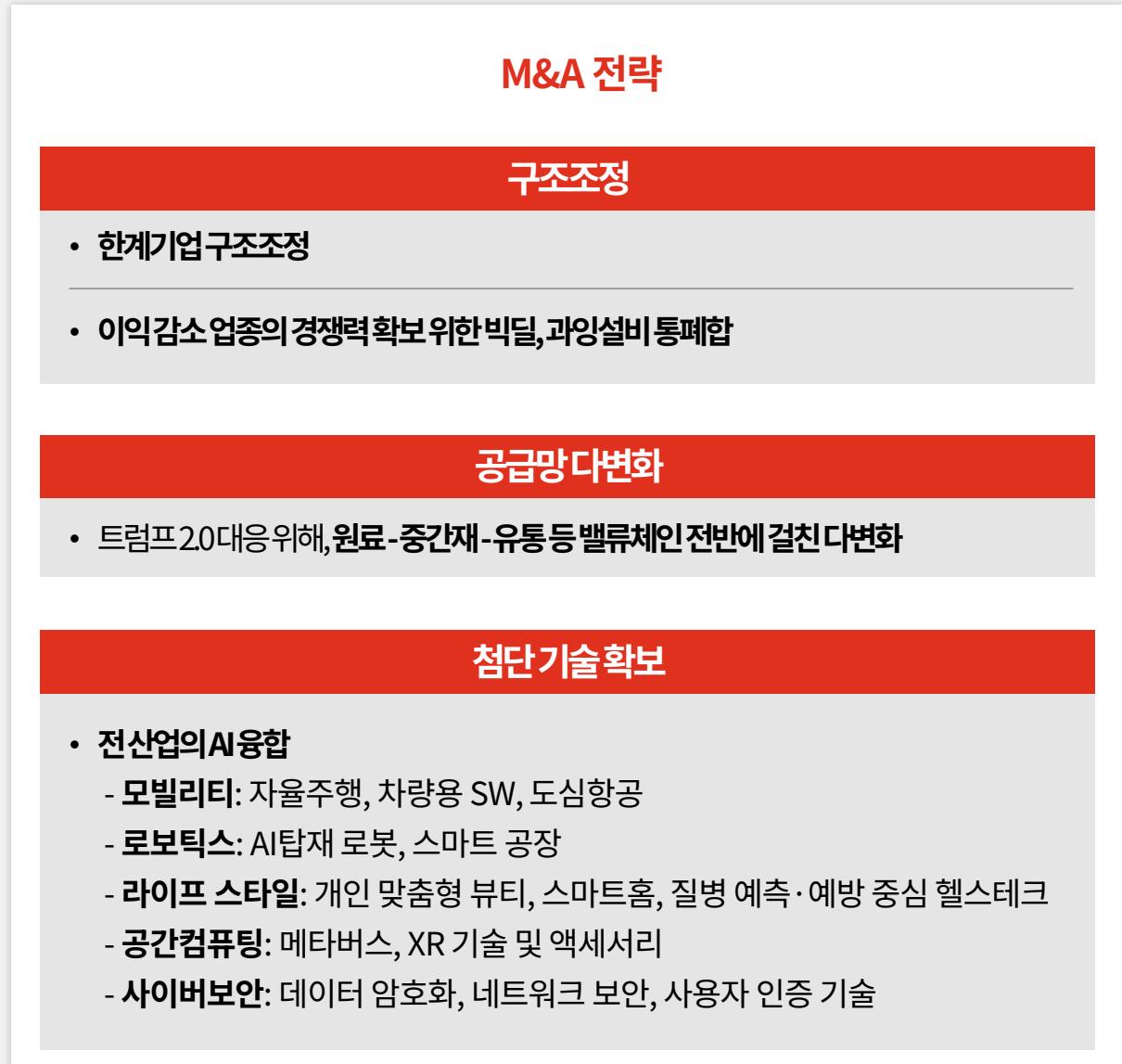
PE

- PE 주도 M&A 회복 추세: '24년 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2%, +23%로, 시장(YoY -18%, +5%) 대비 큰 폭 회복 중
- 풍부한 자금 여력 + 기 보유 포트폴리오 Exit 압력 증가 + 트럼프의 기업 친화적 정책 → PE의 M&A 활동 활성화 전망
- 주요 관심사는 ① 포트폴리오 적극 관리, ② 섹터 융합, ③ 사모자본 내 지형 변화
 - 포트폴리오 관리: 보유한 회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투자회사 관리/운영 전담 조직 강화
 - 섹터 융합: 산업간 경계를 넘어서는 기업·프로젝트에 투자
 - 사모자본 내 지형변화: Player 간 통합·대형화, 대형PE의 사모대출 시장 진출 가속화

부동산

- 고금리 완화, 대체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로 '25년 부동산 투자 증가 전망
- 주요 테마는 ① 웰니스, ② 인프라 투자, ③ 보험자본의 역할 증대, ④ 기업 비즈니스 모델 변화

2025년 M&A 전략



2025년 M&A 전략: 업종별 상세 -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고금리 완화 영향으로, 기업 성장과 수익성 확보 측면의 M&A 활성화 전망

CM

- 성장 전략: 인플레이션 억제 및 금리 안정화로 업황 개선 전망 → 기업 성장과 시장 지배력 확대 목적의 M&A 활성화
- 수익성 개선 전략: 사업부 통폐합, 유동성 확보 위한 비핵심 사업 매각 증가

청정에너지 전환, 기술 발전으로 M&A 모멘텀 상승. 주요 관심사는 ① 핵심 광물, ② 화석연료 vs. 청정에너지, ③ 산업 간 상호 의존성

에너지· 유틸리티&소재

- 핵심광물 및 에너지: 재생에너지, 그리드 현대화에 필수 요소인 핵심 광물 M&A 확대
- 트럼프 2.0 화석연료 선호 정책과 글로벌 청정 에너지화 간의 균형 필요
- 산업 간 상호 의존성: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위해 다양한 산업군과의 M&A, 전략적 제휴 등 강조

금리 인하, 규제 완화 등으로 M&A 회복 전망. 주목해야 할 영역은 사모크레딧, PE, 전략적 파트너십

금융

- 사모크레딧: '24년 1.7조 달러 → '28년 2.4조 달러의 고성장 전망. 이에 따라 상품 다양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 위한 M&A 활성화 전망
- PE: (Buy side) 보험 중개, 자산관리, 커미션 기반 비즈니스 집중 (Sell side) LP의 투자 회수 압박으로 PE 포트폴리오의 매각 증가 예상
- 전략적 파트너십: 수익 증대 및 비용 구조 최적화 위해 SaaS 계약/제휴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속

금리 하락·규제 완화로 M&A 시장 강세 전망. ① Cross border 거래, ② 비핵심 자산 매각, ③ IPO, ④ 디지털 혁신에 주목

헬스케어

- Cross border 거래: 미국 관세 인상, 중국 VBP(의약품 대량구매 정책) → 제조시설 이전 등 국경 간 문제 해결 위한 M&A 거래 증가 예상
- 디지털 혁신: 효율성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위해 디지털 자산 또는 AI 기반 서비스 M&A 활동 증가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 위해, ① 포트폴리오 최적화, ② 디지털 역량, ③ 지속가능성에 집중

산업재 및 자동차

- 포트폴리오 최적화: 핵심 성장 영역 집중과 수익성 제고 위한 분사, 비핵심 사업부 매각 전망
- 디지털 역량: AI, 자동화, 로봇 공학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신성장 동력 확보 노력
- 지속가능성: 제조/기계분야 등 지속 가능한 원재료 사용 위한 공정 전환 지속

AI 블룸과 지속적 비즈니스 혁신으로 '25년 M&A 시장 낙관적. 높은 자본 비용·규제 등이 미국 중심으로 완화되며 유리한 딜 환경 조성

IT· 통신&미디어

- AI 블룸: AI 블룸과 향상된 컴퓨팅, 저장 능력 향상으로 소프트웨어·반도체·IT 서비스 관련 메가딜 및 전반적 M&A 거래 증가 전망
- 비즈니스 모델 혁신: 데이터센터, 위성, 뉴미디어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 지속

2025년 M&A 전략: 업종별 상세 - 국내

CM

소비 침체 지속 및 내수시장의 한계에 따른 기업들의 탈출구 찾기 지속: 수요처 확대(해외) + 효율성 증대(신기술 접목)

- 수익성 개선 위한 비핵심사업 조정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성장 동력으로 해외 시장 공략
- AI,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접목한 개인맞춤형 쇼핑, 초개인화 화장품 등 부상. 또한 생산과정 자동화 진행되며 로봇 확산

에너지·
유틸리티&소재

포트폴리오 전환이 필요한 시점: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

- 구조조정: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딜, 설비 합리화(과잉설비 통폐합) 필요
- 고부가가치/친환경/신기술 적용 확대: 고기능성 제품 개발, 탄소중립 위한 투자, AI·빅데이터·로봇 등 활용한 비용 최적화 진행

금융

금리 하락기 진입에 따라 건전성 우려 다소 완화되며,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에 대한 투자 가속화 전망

- 디지털 전환: AI 적용 확대, 온라인 채널 강화를 위한 비금융사업부 제휴 증대, 빅데이터 투자 지속
- 신사업 및 해외 투자 증가: STO(토큰증권)·디지털 자산·BaaS 등 금융 연관 신사업 뿐 아니라, 시니어주택 등의 비금융 부문 진출 활발

헬스케어

대내외적으로 우호적 헬스케어 산업 여건 下, 바이오와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에 대한 직접 투자 및 M&A 증가 전망

-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통제약사 및 대기업의 바이오 부문 투자 지속
- 신약개발 및 판독/진단,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투자 증가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별 업황은 상이하나, 미래산업 전환 위한 투자 기조는 동일. 관심사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신기술, 공급망 안정화, 친환경

-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자산 및 수익성 낮은 사업부 매각 후 자금 확보 → 신사업에 대한 투자
- 신기술 확보: 친환경, AI, 로봇, 자율주행에 집중 투자
- 공급망 안정화: 트럼프 2.0의 무역규제 확대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 재부각 → 미국/ EU 등 주요 판매지역으로 생산공장 이전 및 증설

IT·
통신&미디어

트럼프 2.0에 따른 IT 전방산업(Legacy IT 제품) 수요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기술 및 제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속

- 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보안 관련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 M&A보다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또한, AI 역량 확보 위한 이종 업종 간 전략적 제휴 증가 기대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5 Outlook

2024년 M&A 시장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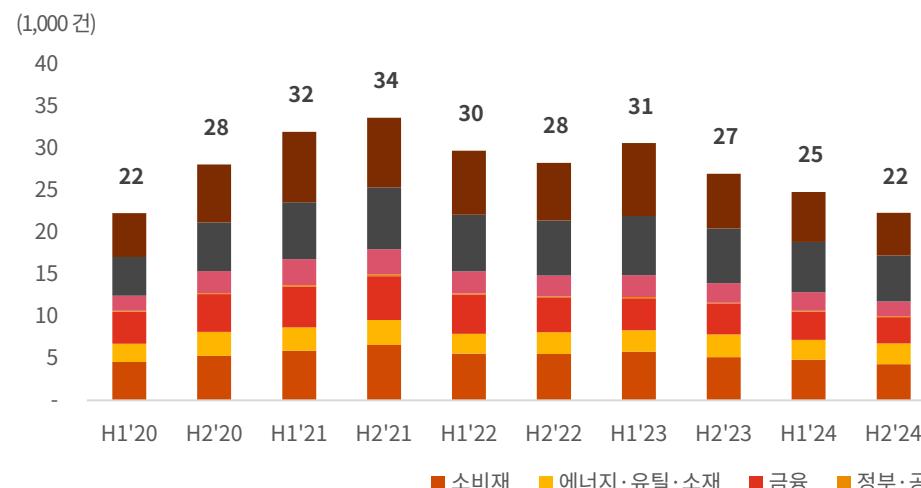


2024년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업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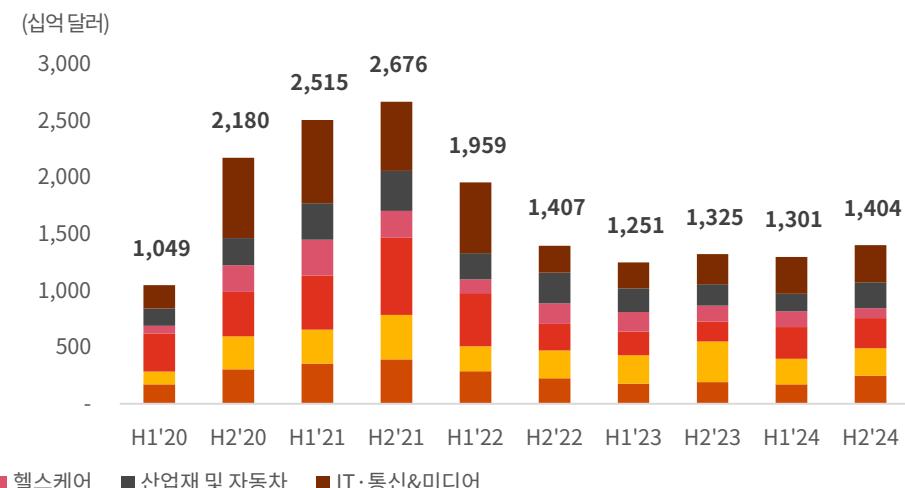
- '24년 글로벌 M&A 시장은 거래 건수 47,178건(YoY -18%), 금액 2.7조 달러(YoY +5%) 기록 → 거래 금액 소폭 반등했으나 거래 건수 감소 지속
 -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 시, 거래 건수 -6% 감소, 금액 -21% 감소
- 대형 딜(거래 금액 10억 달러 이상) 건수는 전년 대비 17% 증가, 중소형 딜 거래 건수는 18% 감소하며 시장 혼재. 대형 딜은 전체 거래 건수 중 1% 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시장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중요
-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사모크레딧과 은행 간 대출 경쟁 증가로 조달 비용 부담 완화 → 사모대출 활용한 기업 구조조정 증가, 추가 자본 제공
- 금융(YoY +43%), IT·통신 & 미디어(+32%), 소비재(+13%) 거래 금액 증가 vs 산업재 및 자동차(-3%), 에너지·유ти리티 및 소재(-23%), 헬스케어(-29%)는 거래 금액 감소
 - 거래 금액은 섹터별로 증감이 상이하나, 거래 건수는 전 영역에서 전년 대비 감소
 - 엔터, 테크, 항공우주/방위, 금융 서비스 부문은 메가딜(거래 금액 50억 달러 이상)이 주도. 특히 AI 중심의 투자 슈퍼 사이클에 IT·통신 & 미디어 거래 활발

글로벌 M&A 거래 건수 및 금액(Industry별)

거래 건수



거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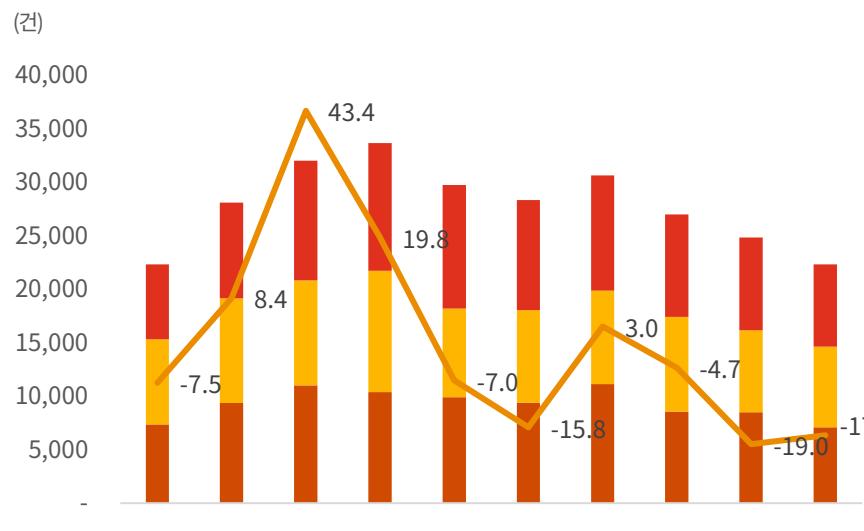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4년 M&A 시장 점검: 시장 전체, 지역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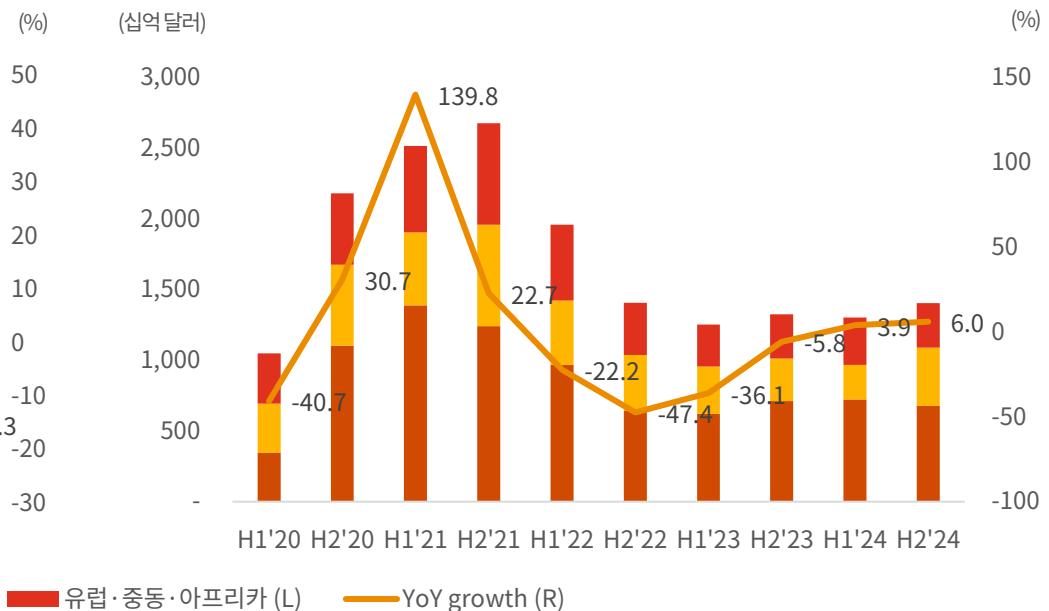
- 전 지역에서 거래 건수 감소한 반면, 거래 금액은 증가. **유럽·중동·아프리카(YoY +6%), 미주(+5%), 아시아태평양(+4%)** 순으로 거래 금액 회복
 -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 거래 건수(-6%), 거래 금액(-21%) 감소. 거래 금액은 아시아태평양(-27%), 미주(-20%), 유럽·중동·아프리카(-17%) 순으로 감소
 - (미주)** 미국 거래 금액 연간 +6% 증가하며 미주 시장 회복을 주도. 미국 외에는 아르헨티나가 재정 상황 개선되며 2019년 이후 최대 거래 건수 회복
 - (유럽·중동·아프리카)** 전년 대비 거래 금액 +6% 증가. 유럽은 발틱 지역 거래 부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소비재·금융 메가딜,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의 IT·통신 & 미디어 딜 증가하면 회복 기조. 중동은 산업 다각화, 녹색경제 등 국부펀드 주도 신흥 부문 투자 지속, 유가 상승으로 자본력 뒷받침
 - (아시아태평양)** 소비재, 금융, 테크 부문 위주로 거래 금액 회복. 일본, 인도의 M&A 시장 회복 및 성장세가 두드러짐

글로벌 M&A 거래 건수 및 금액(지역별)

거래 건수



거래 금액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4년 M&A 시장 점검: 글로벌 Top 10 Deal – 미국 강세, 다양한 섹터에 관심

- ’24년 상위 10개 딜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실행. Top 10 거래 중 인수기업 7개사, 피인수기업 6개사가 미국 기업
- 산업의 경우 ‘소비재’, ‘IT·통신·미디어’, ‘에너지·유트리티·소재’ 등 다양한 섹터에 딜이 분산되어 있음. 총 거래 금액으로는 ‘소비재’ 섹터 우세

Top 10 Global Deals,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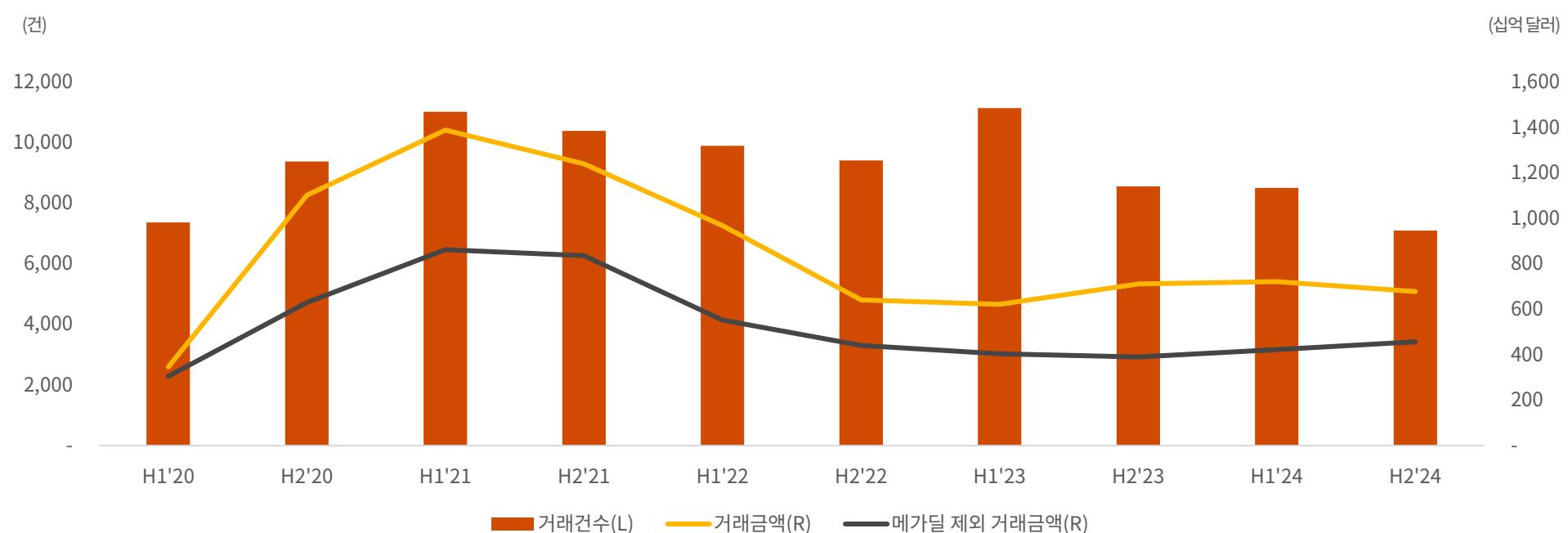
	Target	Buyer	Sector	Deal size(US\$bn)
1	Seven & i Holdings Co Ltd	Alimentation Couche-Tard Inc	Retail	38.7
2	Discover Financial Services	Capital One Financial Corp	Banking & Capital Markets	35.3
3	ANSYS Inc	Synopsys Inc	Technology	32.5
4	Kellanova	Acquiror 10VB8 LLC	Consumer	29.7
5	Endeavor Energy Resources LP	Diamondback Energy Inc	Oil & Gas	25.8
6	SRS Distribution Inc	Home Depot Inc	Retail	18.3
7	Marathon Oil Corp	ConocoPhillips	Oil & Gas	17.2
8	AirTrunk Operating Pty Ltd	Investor Group	Technology	16.1
9	Schenker AG	DSV A/S	Transportation & Logistics	15.8
10	China Shipbuilding Industry Co Ltd	China CSSC Holdings Ltd	Aerospace & Defence	14.9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2024년 M&A 시장 점검: 지역별 - 미주

- '24년 미주 지역의 M&A 거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1% 감소, +5% 증가. 거래 건수 및 금액 증감 모두 글로벌 전체 평균(각각 YoY -18%, +5%)과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중소형 딜을 중심으로 높은 회복이 기대되는 지역
 -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 시 거래 건수는 +3% 증가한 반면, 거래 금액은 -20% 감소
- 미주 지역 '24년 하반기 M&A 거래 건수, 금액 상반기 대비 각각 -17%, -6% 감소한 반면, 메가딜 제외 거래 금액은 8% 증가하며 중소형 딜 위주 회복
 - 미주 외 타 지역은 하반기에도 여전히 메가딜이 시장을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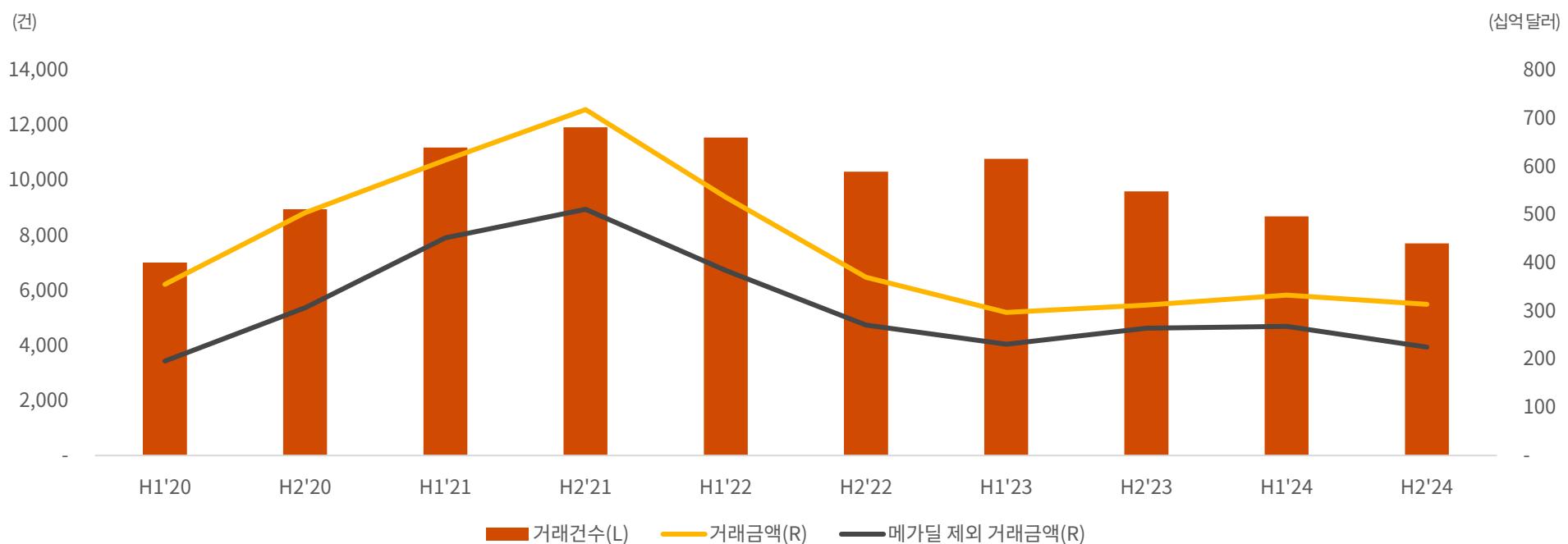
미주 지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추이



2024년 M&A 시장 점검: 지역별 - 유럽·중동·아프리카

- '24년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의 M&A 거래 건수 전년 대비 -20% 감소, 금액 +6% 증가하며, 글로벌 전체 평균(각각 YoY -18%, +5%)과 유사한 양상
 -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 시에는 거래 건수는 -6%, 금액은 -17% 감소
- '24년 상반기에는 영국·중동 지역의 회복이 두드러지고, 하반기엔 유럽 전역 메가딜 증가 양상
 - 상반기 유럽 국가들의 거래 금액 감소했지만, 영국의 M&A 시장은 큰 폭 회복. 하반기는 ECB 금리인하와 함께 유럽 전역 메가딜 증가
 - 중동 지역은 산업 다각화, 녹색경제 등 국부펀드 주도 신흥 부문 투자 지속. 석유 생산 감축에 따른 유가 상승이 자본력을 더 뒷받침해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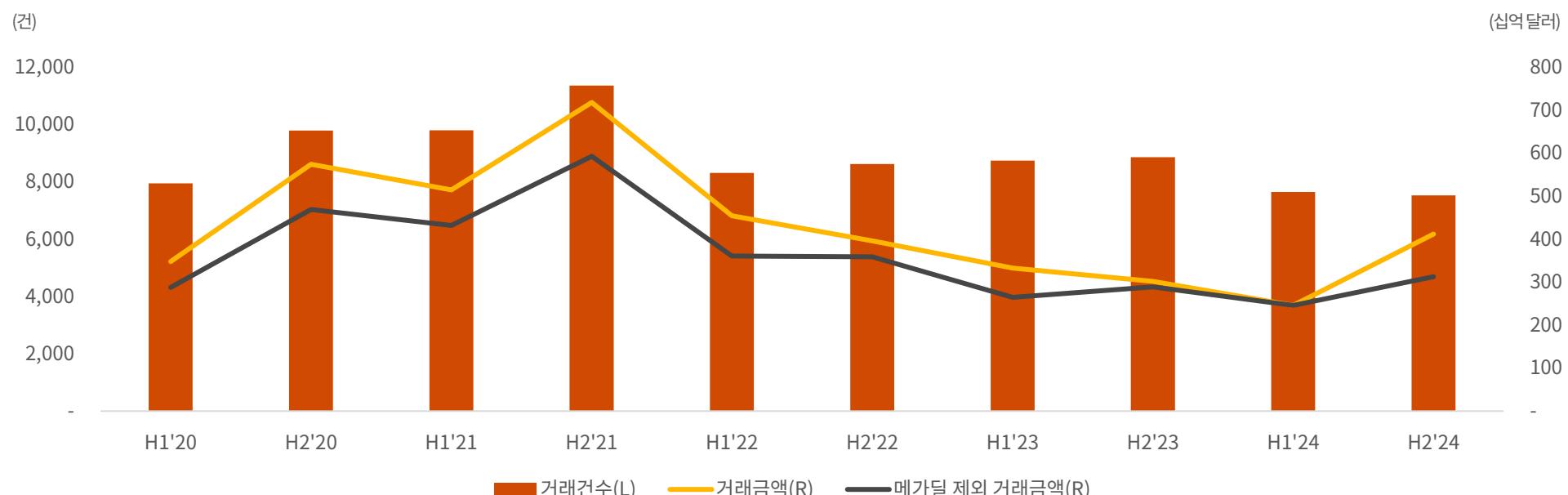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추이



2024년 M&A 시장 점검: 지역별 - 아시아태평양

- '24년 M&A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14% 감소, +4% 증가. 글로벌 전체 평균(각각 YoY -18%, +5%) 대비 거래 건수 부문 선방
 -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 시 거래 건수와 금액 각각 -13%, -27% 감소한 기록을 보이며, 타 지역 대비 회복 지연
- 국가별로는 중국의 IPO 규제 및 경기둔화 지속되며 M&A 부진 지속. 반면, 일본·인도 시장이 선방
 - 중국: 메가딜 부진으로 '24년 상반기 거래 금액 전년 동기 대비 -35% 하락. 다만, VC 중심의 중소형 딜이 활발해지며 거래 건수는 회복되는 추세
 - 일본: 성공적 기업가치 밸류업으로 M&A 거래 건수 '85년 이후 최고치 갱신. 글로벌 딜 1위 규모의 세븐홀딩스 매각, 리솔루션라이프 인수 등 대형 딜이 성사되며 연간 거래 금액 +24% 증가. 기업들의 비핵심 자산군 매각, 자본 효율성 높이려는 움직임도 활발
 - 인도: 연간 거래 금액 +20% 증가하며 현저한 회복세
 - 동남아시아: 거래 건수 선방(YoY -9%). 싱가풀이 선도하는 시장 회복 속, 베트남 행정절차 개혁, 필리핀 에너지/인프라 프로젝트 외국인 투자 유치

아시아태평양 지역 M&A 거래 건수 및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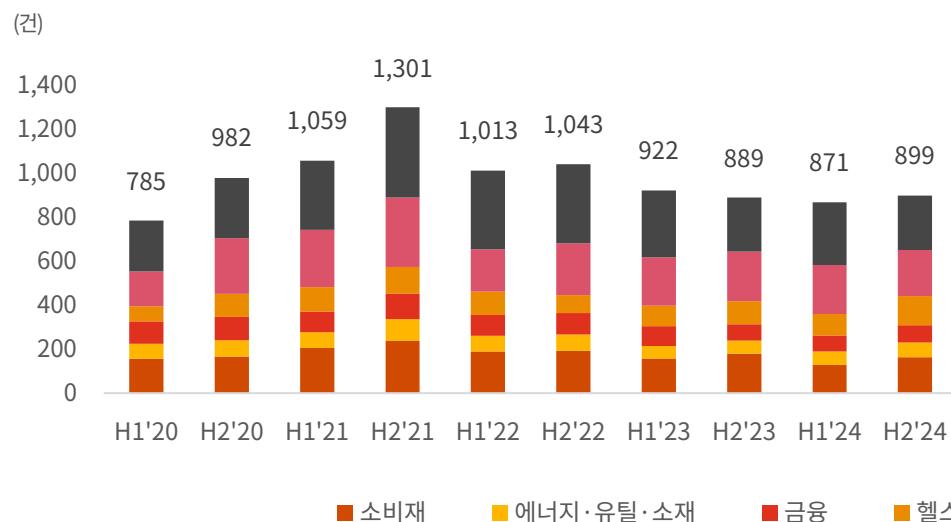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2024년 M&A 시장 점검: 지역별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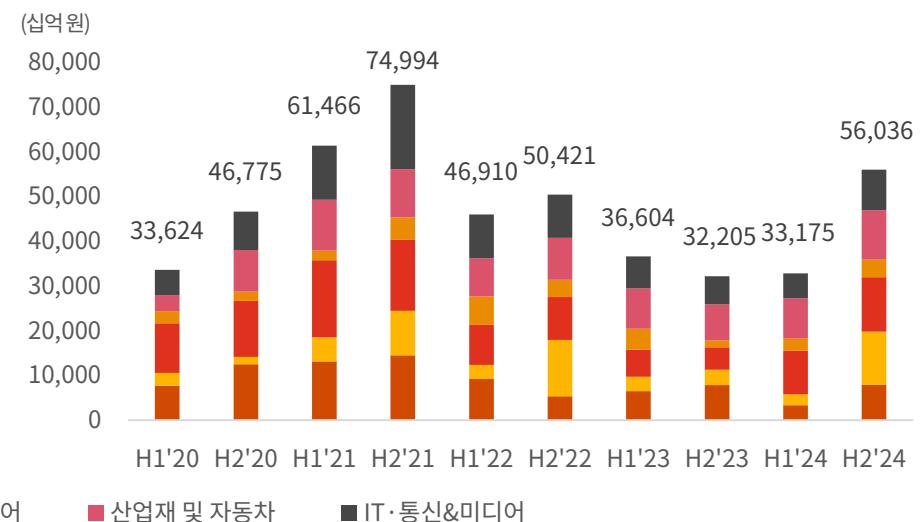
- '24년 국내 시장은 거래 건수 1,770건(YoY -2%), 거래 금액 89조 원(YoY +30%)으로 글로벌(각각 -18%, +5%) 대비 건수·금액 모두 크게 선방
 -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시 거래 건수는 +2%, 거래 금액은 +8% 증가하며 M&A 시장이 규모면에서는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회복
- 업종별로는 거래 금액 기준 '24년 대비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117%), 금융(+97%), 산업재 및 자동차(+18%), IT·통신&미디어(+9%), 헬스케어(+6%), 소비재(-21%) 순으로 변동
 - 에너지·유틸리티·소재 분야가 업황 부진에 비해 M&A 거래 금액이 큰 이유는 SK그룹 내 사업구조개편(리밸런싱)에 기인함. 업황 부진을 만회하고자, SK E&S를 SK이노베이션 산하로 흡수합병시키고, SK Inc 산하 SK스페셜티를 한앤컴퍼니에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 활동 활발
 - 소비재는 저성장·고물가에 따라 소비심리 둔화되며, '24년 소매판매액이 큰 폭 감소. 내수 부진 심화되며 해당 섹터 내 M&A 침체 지속

국내 M&A 거래 건수 및 금액: Industry별

거래 건수



거래 금액



2024년 M&A 시장 점검: 한국 Top 10 Deal

- '24년 국내 대기업은 사업 구조 재편 (특히 SK그룹 리밸런싱) 위주로 M&A 진행. 이외의 딜은 PE가 주도
 - 10건 중 5건은 SK그룹 딜로 Top 10 중 딜 규모 1,2,3,9,10위를 차지. 중국과의 경쟁 격화에 따라 에너지·유트리티·소재 부문 수익성이 악화되며, 비용 효율화 및 재무건전성 개선 위해 그룹 내 계열사들을 매각 및 재편한 것으로 보임. 또한, SK그룹 전반 리밸런싱으로 SKB 완전 자회사화, SK 온 유상증자 추진
 -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 생명 인수, 지오영 지주사인 조선혜지와이홀딩스의 재무적 투자자 블랙스톤에서 MBK로 교체, 한국타이어가 한앤컴퍼니의 한온시스템 지분 23% 인수 등의 대형 딜 발생

Top 10 Deals in South Korea, 2024

Rank	Target	Buyer	Sector	Deal size(KRW bn)
1	SK E&S	SK 이노베이션	전력&유트리티	6,194 
2	E&S 도시가스*	Strada · Corsa Holdco (KKR SPV)	자산관리(전력&유트리티)	3,140 
3	SK 스페셜티	한앤컴퍼니	화학	2,700 
4	에코비트*	IMM 컨소시엄	비즈니스 서비스(건설/환경)	2,070 
5	조선혜지와이홀딩스*	MBK 파트너스	자산관리(헬스케어)	1,950 
6	동양·ABL생명	우리금융지주	보험	1,549 
7	한온시스템	한국타이어	자동차	1,227 
8	SK 브로드밴드	SK 텔레콤	테크	1,150 
9	티맥스데이터	캐터스PE, 스틱인베스트먼트	통신	1,100 
10	SK 온	투자자 그룹	제조	1,000 

* 해당 회사들은 지주회사 구조로 자산관리 또는 비즈니스 서비스로 분류. 이에 주력 비즈니스를 괄호안에 별도 표기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Based on publicly announced deals.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5 Outlook

2025년 M&A 시장 전망



M&A 시장을 둘러싼 매크로 환경

- 과거와 같은 저금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속,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 M&A에 비우호적 매크로 환경 장기화 되며, 시장주체들의 '활로 모색' 진행
 - 중금리 환경下 사모크레딧(Private Credit)의 성장
 - 트럼프 2기 정부의 기업 친화 정책, 높은 기업가치(Valuation), 강달러 기반으로 미국 기업들의 Cross border 거래 증가 예상

		매크로 환경	M&A 시장에의 영향
①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국 기준금리 인하 진행 중이나,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재발→ 장기금리 상승 ■ 단, 장기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은행과 사모크레딧 간 대출 경쟁 증가하며 자금조달 원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와 같은 저금리 환경 기대는 무리 ■ 돌파구 모색 위해 사모자본의 사모크레딧社 투자 활발 → 사모대출 성장과 함께 구조조정 시장 활기
②	트럼프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주의와 관세 인상으로 교역량 감소 및 인플레이션 유발 우려 ■ 법인세 인하, 기술 관련 규제 완화 등 자국(미국) 기업 친화적 정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무역주의 확산은 M&A에 부정적 ■ 반면, 미국의 기업 친화정책으로 인해 미래 성장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기대
③	지정학적 리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내 정치적 갈등: 캐나다, 프랑스, 독일, 한국 등 ■ 국가 간 분쟁: 러-우 전쟁, 중동 분쟁, 미-중 패권 다툼 지속 ■ 단, '24년 미국 등 주요국 선거가 마무리 된 점은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은 M&A 시장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④	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간 Valuation 격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orward P/E: 미국 22.9배(S&P 500) vs. 非미국 13.7배 (S&P International 700) _'25.1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기업가치와 강달러 기반으로, 미국기업 중심의 Cross border 거래 증가 전망

2025년 M&A 시장 전망

1 비즈니스 모델 변화 필요성 증대

- 성장산업으로의 전환: 신기술(AI, 자동화,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등) 투자 지속
- 포트폴리오 재정비: 비핵심·저성장 자산 매각 및 스플리트업

2 AI가 주도하는 투자 가속화

- AI 확산으로 AI 기술 뿐 아니라,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가속화
 - 향후 5년간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 최대 2조 달러의 글로벌 자본 지출 예상
- AI 주도의 투자 슈퍼 사이클은 M&A에 두 가지 방식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긍정적: AI 벤처체인 내에 위치한 회사/자산을 전략적으로 인수함으로써 M&A 증대
 - 부정적: 투자자들이 'M&A 통한 기업 인수'에서 '파트너십 및 전략적 제휴 구축'으로 방향을 전환함에 따라 M&A가 위축될 가능성 존재

3 사모펀드 Exit 압력 증가

- '24년 말 기준 사모펀드 포트폴리오 내 29,400개 회사가 존재하며, 이 중 46%는 '20년부터 보유
- PE의 평균 투자기간(4~5년) 고려 시 차익실현에 대한 투자자(LP)들의 압력 증가
- 비우호적 M&A 환경 + Exit 압력 증가 → 컨티뉴에이션(Continuation) 펀드* 증가
 - * 기존 펀드에서 관리하던 자산을 신규 펀드로 옮기되, 기존 GP가 지속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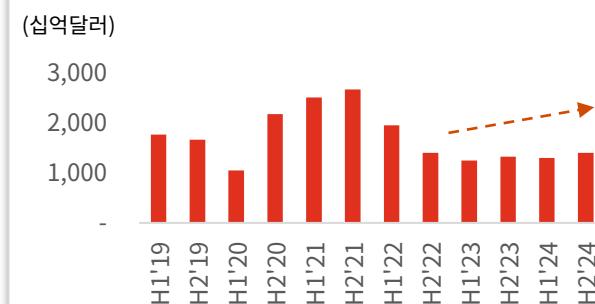
[컨티뉴에이션 펀드 구조 및 규모]



3년째 지속된 침체

→ 시장 주체들의 활로 모색 지속되며, 하반기로 갈수록 M&A 시장 점진적 회복

[M&A 거래 금액 추이]
: '1H22를 저점으로 바닥 다지기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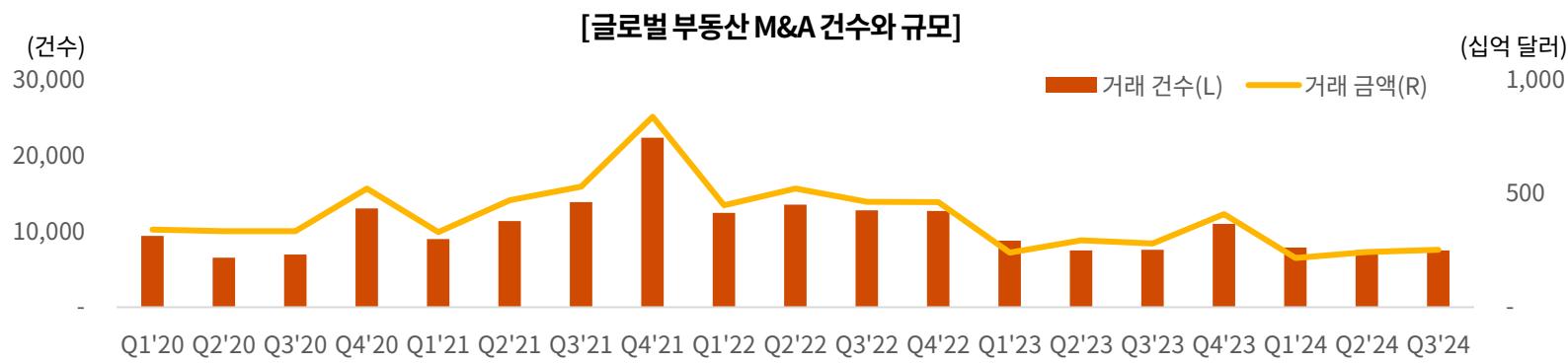
주요 투자 주체별 전망

기업

- 매출 성장을 가속화하고, 비즈니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거래에 관심 지속
 - 많은 국가들이 저성장 장기화에 직면 → 기업들은 매출 증대를 위해 신시장 개척 필요
 - 지정학적 이슈(공급망), AI 중심의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혁신 요구 증가
 - 인수자금 마련 위해 비핵심자산을 매각하려는 움직임 지속

부동산 (Real Est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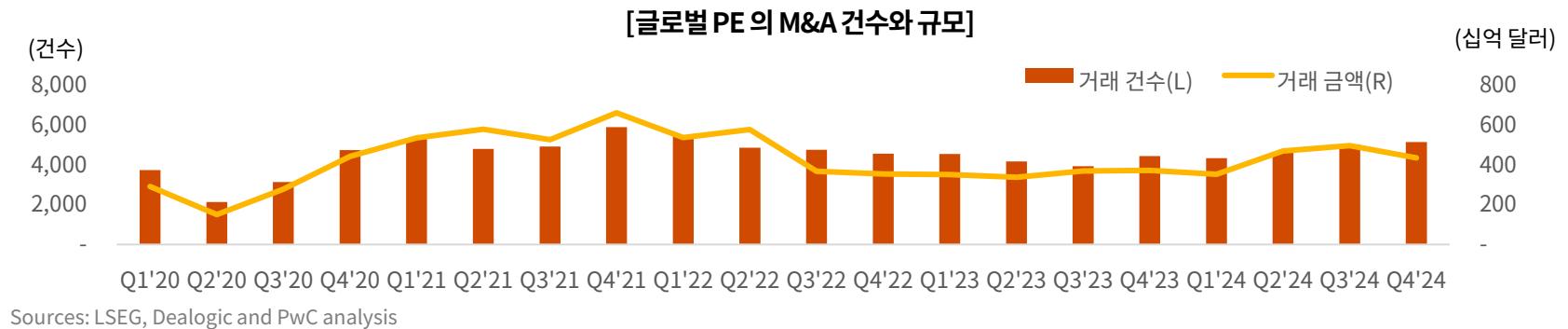
- '24년 상반기까지 고금리 환경 지속되며 부동산 부문 침체
 - '1Q24 거래 금액 기준 10년 내 최저치 기록 후 시장은 미약한 회복 진행
- 고금리 완화 + 대체자산에 대한 관심 증가 → '25년 부동산 투자 증가 전망
 - 다만, 트럼프 發 관세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발 및 금리인상 가능성은 리스크 요인
- 부동산 부문 주요 테마는 ① 웰니스, ② 인프라 투자, ③ 보험자본의 역할 증대, ④ 기업 비즈니스 모델 변화
 - ① 웰니스: 향후 3년간 웰니스 관련 부동산은 연평균 15.8% 성장 전망. 특히 고령자 주택의 다양화와 고성장 기대
 - ② 인프라 투자: AI 확산에 따라 데이터 센터, 디지털 인프라, 전력 생산에 대한 투자 증가
 - ③ 보험자본의 역할 증대: PE의 보험사 인수 및 전략적 제휴 → 보험자산 통한 부동산 투자 지속 증가
 - ④ 기업 비즈니스 모델 변화: 자본 효율성 개선 및 기업가치 상승 위한 자산 경량화 추세 → 기 보유 부동산 스피노프(Spin-off) 전략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주요 투자 주체별 전망

- '24.2Q 이후 PE 주도 M&A 회복 추세
 - PE의 M&A 거래 금액: '23년 1.4조 달러 → '24년 1.7조 달러 (YoY+23%) - 거래 건수: 17,000건 → 19,100건 (YoY+12.4%)
- 풍부한 자금 여력 + 기 보유 포트폴리오에 대한 Exit 압력 증가 + 트럼프의 기업 친화적 정책 → '25년 PE의 M&A 활동 활성화 전망
 - 자금 여력: '24년 기준 드라이파우더 1.6조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 '19년 1.1조 달러 대비 43% 증가한 규모
 - 전통적 기관 투자자 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 및 보험회사까지 사모 시장 진출 증가
 - EXIT 압력 증가: 포트폴리오 내 50% 수준의 회사가 보유기간 4년 이상. 평균 투자기간(4~5년) 고려 시 투자자(LP)들의 Exit 요구 증대
 - 트럼프 2.0 정책: AI·바이오 등 미래 핵심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친화적 정책



- '25년 PE의 주요 관심사는 ① 포트폴리오 적극 관리, ② 섹터 융합, ③ 사모자본 내 지형 변화
 - ① 포트폴리오 관리: 보유한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투자회사 비용절감·성장 가속화 등에 초점을 맞춘 운영 부서 설립
 - ② 섹터 융합: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서는 기업·프로젝트에 투자
 - ③ 사모자본 내 지형변화: Player 및 투자분야 통합
 - Player: 대형사 위주로 시장 개편. 중소운용사는 생존을 위해 틈새 분야 전문화 및 전략적 제휴 모색 중
 - 국부펀드가 LP 위주의 역할에서 벗어나, 직접 투자 비중 확대
 - 투자 분야: 대형PE의 사모대출 시장 진출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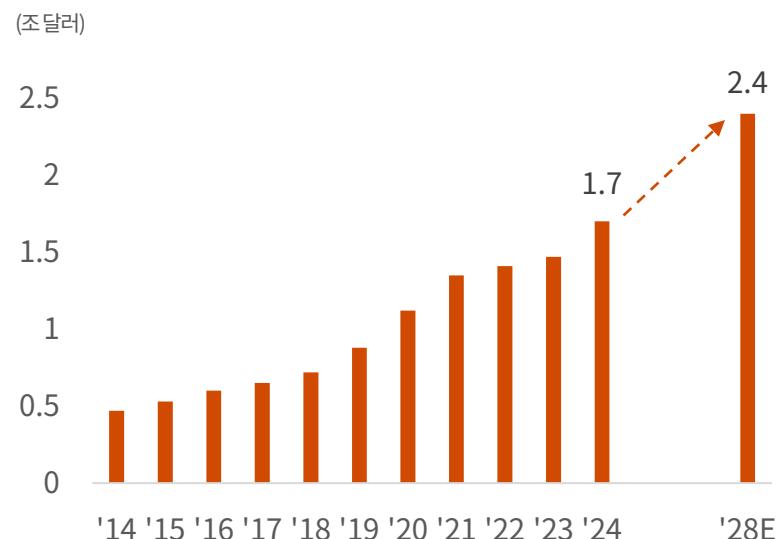


M&A Trend – 투자 전략으로 주목받는 사모크레딧

사모크레딧(Private Credit) 트렌드

- 중금리 지속·전통 은행의 대출 기준 및 자본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사모크레딧 고성장 → '28년 2.4조 달러 전망 ('24년 대비 약 1.4배)**
 - 사모크레딧은 은행 등 전통 금융기관이 아닌 사모펀드·전문투자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고금리와 자본규제 강화* 등으로 중견기업 위주 대출이 축소됨에 따라 관심 확대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 바젤III 등 전통 은행 대출 가이드라인 강화
 - 특히,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 대출은 어렵지만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 구조조정 후 정상화 단계 기업 등에게 인기
- 양호한 수익률, 낮은 손실률 등으로 국내외 기관투자자·자산운용사·PE 등의 사모크레딧 진출 활발**
 - 사모크레딧은 기준금리 대비 300~700bp 높은 가산금리, 양호한 손실률* 관리로 고수익성 영위
* '24Q 기준 2.7%로, 신디케이트론 채무 불이행률 4.3%과 비교시 양호 (Proskauer private credit default index)
 - 해외는 북미 중심으로 기업 직접대출, 국내 및 아시아는 부동산/인프라 크레딧에 집중하는 추세
 -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운용사 및 대형 PE 중심으로 사모크레딧 대응 및 사업 확장을 위한 전문팀 신설 움직임 강화

글로벌 사모크레딧 AUM 전망



사모크레딧 유형 및 현황/전망

유형	특징	현황/전망
직접대출 (Direct len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주(중견기업)와 대주가 세컨더리 시장에서 직접 거래 대출담보: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 만기 보유 가정하여 낮은 변동성, 높은 수익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 사모크레딧 내 직접대출 비중 급증 : '08년 13.2% → '24년 45.4% → '29년 66% 금리 인하시업사이드 전망: 대부분 PE 스폰서 대출로 저금리에 따른 수익률 하락 우려보다 유동성 증가, 건전성 개선 등 긍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
BDC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에서 벤처기업 투자 확대 목적으로 도입. 민간 VC 및 벤처 부채 펀드와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2.0은 미국 중견기업 대상 감세 정책 등 우호적 정책 시행 예정이라, BDC 기대감 상승
부동산/인프라 크레딧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 부실 증가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전략의 하나로 사모 대출의 활용도 높아짐. 특히 아시아 중심으로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LP는 부동산 equity 투자 비중을 낮추되 부동산 대출 비중을 늘리는 추세. 주로 대출 블라인드 펀드 형태
ABF (자산담보부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사모자산에 투자하거나 대출 및 인수 업무를 하는 플랫폼 회사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자산 대비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 금리 인하시 관심증대 전망

Sources: PwC Global, Moody's, 삼일PwC경영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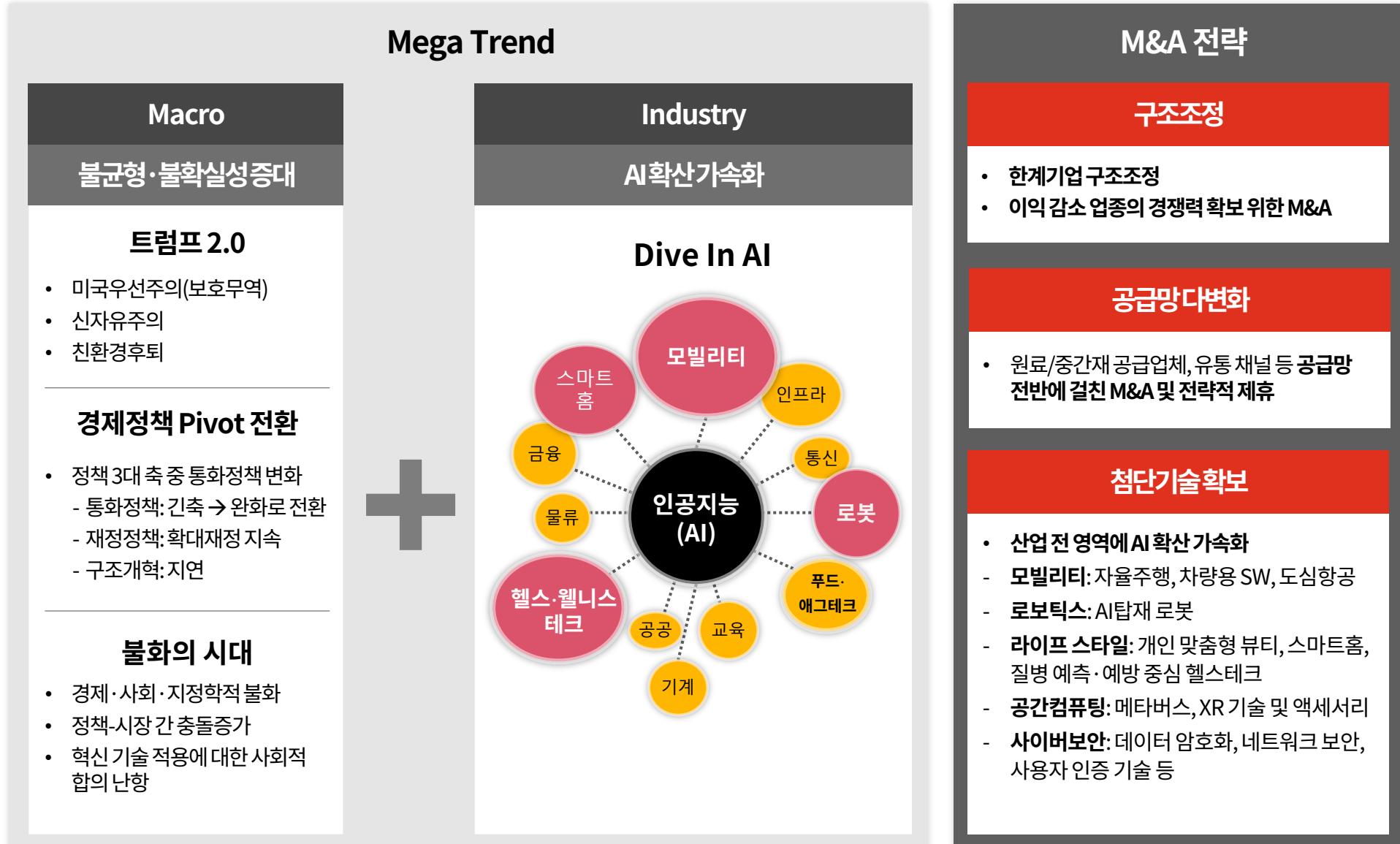
Sources: 삼성증권, 삼일PwC경영연구원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5 Outlook

2025년 M&A 전략



2025년 M&A Outlook



2025년 M&A 전략 – ① 구조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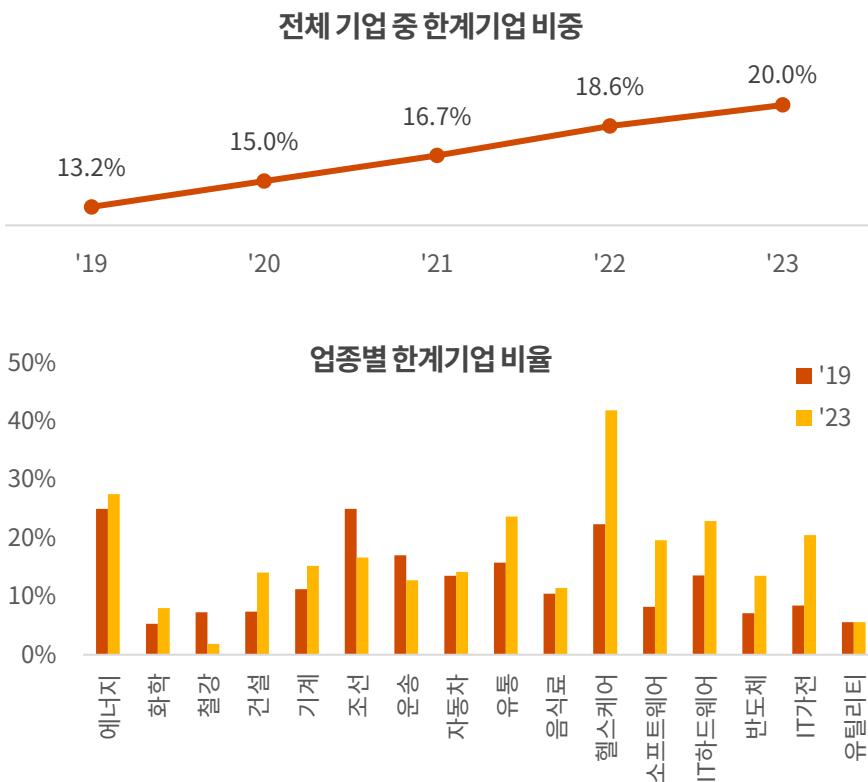
▪ 저성장 지속에 따라 한계기업 증가하며, 구조조정 필요성 점증

- 한계기업* 비중 지속 증가: '19년 13.2% → '21년 16.7% → '23년 20% *3년 연속 이자비용이 영업이익보다 큰 기업
- 업종별로는 헬스케어, IT, 유통, 건설, 기계, 화학의 한계기업 비율 증가

▪ 또한, 중국의 기술 추격·전방산업 부진 등으로 이익이 지속 감소하는 업종도 경쟁력 확보 위한 구조조정 필요

- '21년 이후 화학, 철강, 건설, 유통, 디스플레이 업종 지속적으로 이익 감소 →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한 빅딜, 과잉설비 통폐합을 통한 설비 합리화가 요구되는 시점

한계기업 현황



Sources: Quantiwise, 전체 상장사 대상(은행, 증권, 보험 제외)
직전 3개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 1 기준

업종별 실적 현황

(단위: 조 원)	매출액				영업이익			
	코로나 직전 3년	'22	'23	'24E	코로나 직전 3년	'22	'23	'24E
전 업종	1,839	2,635	2,647	2,777	168	206	164	259
에너지/ 유필리티	에너지	221	362	352	350	11	25	14
	화학	77	117	116	112	6	6	3
	철강	94	130	122	115	6	8	6
	운송	54	86	77	86	2	16	6
산업재	유필리티	94	137	146	146	3	-30	-2
	자동차	230	334	380	398	9	21	33
	건설	68	95	107	108	4	5	4
	기계	53	70	84	85	3	4	6
소비재	조선	38	44	57	69	0	-3	1
	음식료		77	80	84	4	4	4
	유통	66	87	83	86	3	2	2
	화장품/의류	44	60	56	59	4	5	5
헬스케어	호텔/레저	5	4	5	6	1	-0	1
	건강관리	15	25	26	30	2	3	4
	반도체	278	363	304	383	60	53	0
	소프트웨어	31	55	54	58	4	5	5
IT/통신	통신서비스	53	57	58	59	3	4	4
	디스플레이	29	31	26	31	1	-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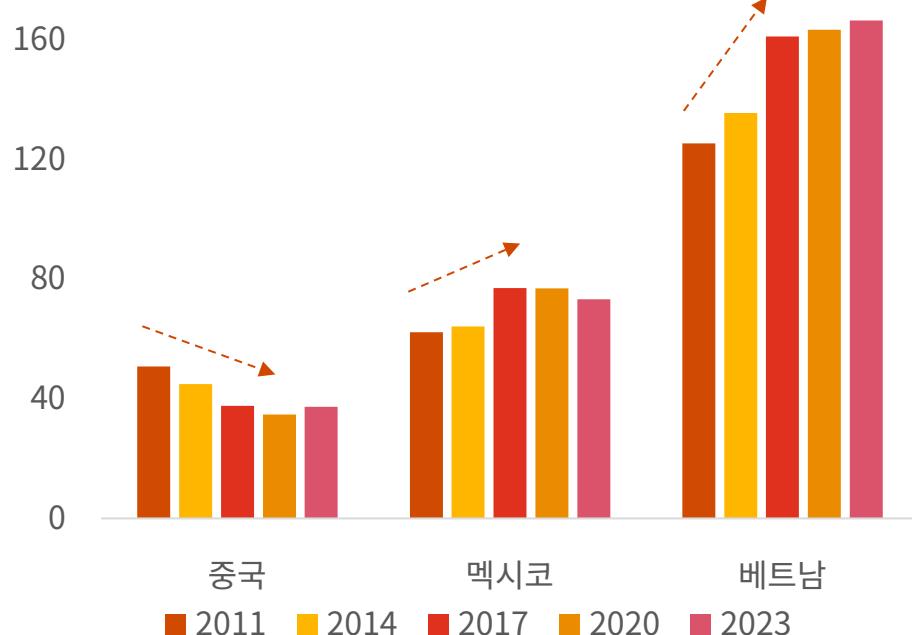
Sources: Quantiwise, 전체 상장사 대상(25.01.31 기준), 연결 재무제표

*'24~'25년 컨센서스 존재하는 기업 한정. 총 512개사로, 전체 상장사 매출 중 69%('23년 기준) 차지

2025년 M&A 전략 – ② 공급망 다변화

- '17년부터 진행된 미중 무역분쟁 下, 중국에서 미국 우방 중심으로 공급망 재편 → 트럼프 2기 정부의 무차별적 보편관세로 공급망 리스크 재점화 예상
 - 트럼프 1기('17년~'21년) 당시 미국의 중국 견제로 공급망 탈중국화 & 니어쇼어링* 및 프렌드쇼어링** 진행
 - *인접국으로 생산기지 이전 **동맹국 공급망 연대
 - '25년 재집권한 트럼프 2기 정부는 중국 뿐 아니라 보편·상호 관세를 통해 미국 무역 적자와 연관된 모든 국가 견제
 - 베트남·멕시코 등 공급망 탈중국화를 위해 선택한 국가들이 관세 회피처가 되지 못할 가능성 높아지며, 공급망 리스크 재발 예상
- 리스크 분산 및 완화 위해 기존 공급망 재평가하고, 원료/중간재 공급업체·유통 채널 등에 대한 M&A 및 전략적 제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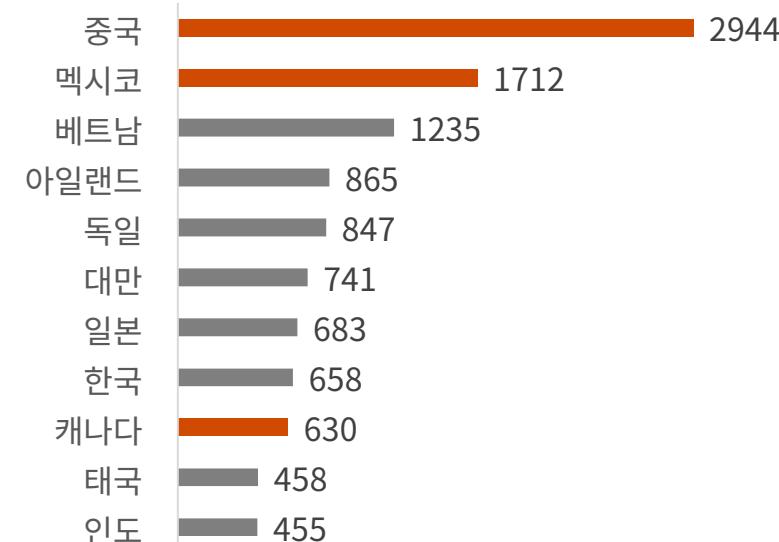
주요 공급망 국가의 무역 비중 (GDP 대비 %)



Sources: World Bank, 삼일PwC경영연구원

미국의 무역 적자 상대국 ('24년 기준)

(단위: 억달러)



'25.1월 취임 후 트럼프 무역정책 변화 ('25.2월 기준)

- 중국 10% 추가 관세 부과 ('25년 2월 시행)
- 멕시코, 캐나다 25% 관세 부과 ('25년 3월 시행 예정)

Sources: 한국무역협회, 미국 상무부, 언론 보도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2025년 M&A 전략 – ③ 첨단기술 확보

- CES(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보여진 '25년 미래 산업 핵심 키워드는 ① 인공지능(AI), ② 디지털헬스, ③ 차량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 독일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 Berlin, 가전 박람회), 스페인 MWC(Mobile World Congress, 모바일 전시회)와 함께 세계 3대 IT 전시회. IT를 중심으로 자동차, 우주, 헬스케어, 식품 등 다양한 산업의 최신 기술 소개

최근 3년간 CES로 살펴본 미래 유망 산업

	CES 2023	CES 2024	CES 2025
주제	Be in IT (Be the one IN the middle of IT all) COVID-19 이후 불확실성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기술과 협력으로 풀어나가자	All Together, All On 모든 기업과 산업이 혁신기술에 전력을 집중하여,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자	Connect. Solve. Discover. DIVE IN 기술로 연결하고, 해결하며, 발견하고, 깊이 탐구하자
핵심 키워드	★AI, 웹3.0/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ESG	★ AI(생성형 AI, On-device AI) 모빌리티, 로봇, 헬스/웰니스 테크, ESG	★ AI, 디지털헬스, 모빌리티 5G, 스마트시티, 로봇, AR/VR/XR, 디스플레이, 스마트홈, 지속가능성, 푸드테크, 인간안보, 우주기술



CES를 통해 본 기술 트렌드 (세부 내용 33~35p 참고)

- 환자 삶 개선, 질병 예측 및 예방 중심으로 **디지털헬스 패러다임** 전환
-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 전기차 도심항공 등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등장
- 인간의 통제 아래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첨단 기술안보 핵심 키워드**로 부상
- 디지털헬스, 모빌리티, 기술안보 등 **핵심 기술과 전 산업에 인공지능(AI)이 접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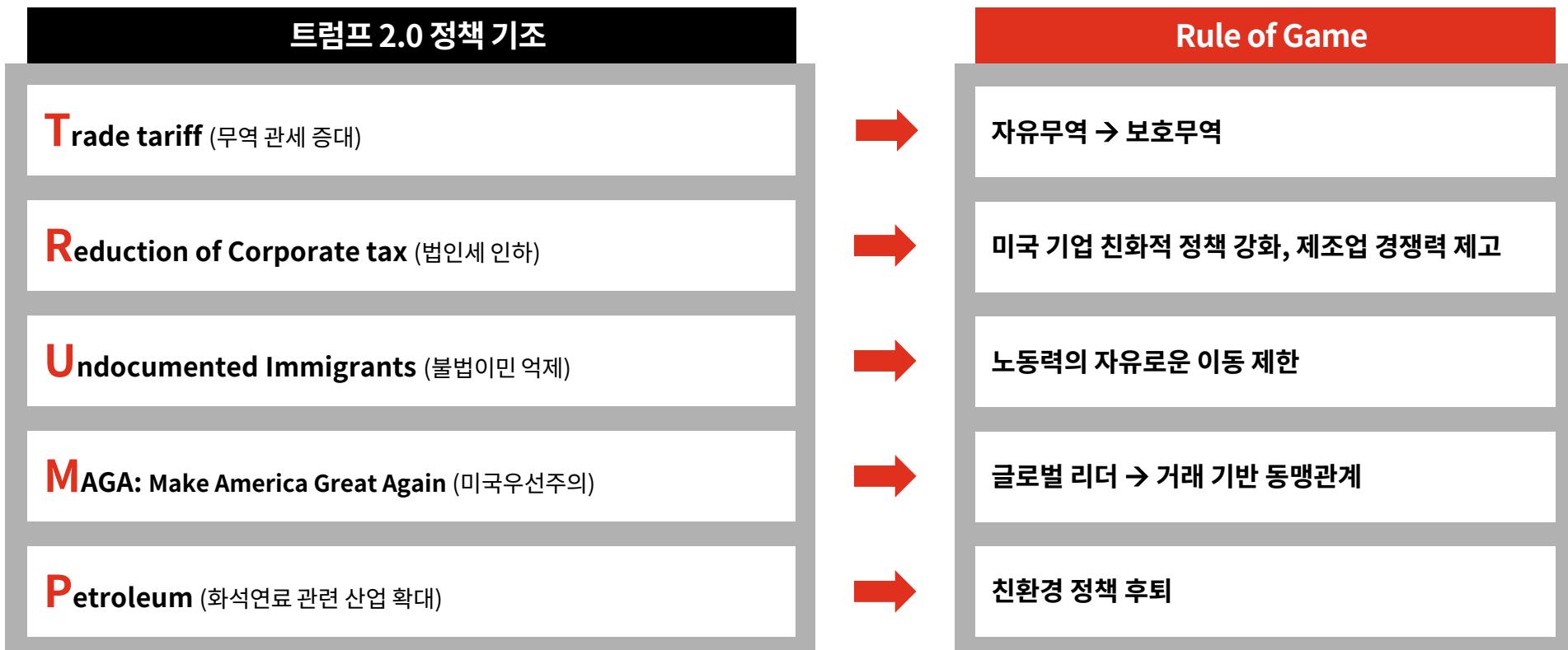
2025년 CES의 상세 내용은 삼일PwC경영연구원의 '[Dive-in AI, CES 2025 미리보기](#)'에서 확인 가능



Mega Trend ① 트럼프 2.0이 가져올 변화

트럼프 2.0 정책 기조

- 트럼프 정부의 철학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호무역주의, ▲대내적으로는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해 고성장을 도모하는 신자유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환경 문제를 묵인할 수 있다는 반환경주의로 대변



트럼프 2.0에 대한 상세 내용은 삼일PwC경영연구원의 '[2025년 국내외 경제전망](#)' 및 '[2025년 산업전망](#)'에서 확인 가능



Mega Trend ① 트럼프 2.0이 가져올 변화

트럼프 2.0 주요 정책과 영향

트럼프 2.0 주요 정책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보) 고립주의 정책 기조, 동맹국 방위비 분담 증액 (전쟁) 러-우 전쟁 종결 유도, 중동 분쟁에서 이스라엘 지지 (대북) 협상 의지, 다만 북한 대화 거부 시 최대 제재
통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역) 양자 협상과 상호성 원칙 기반, 걸림돌 되는 국가 관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자 협상: 다자 협상 아닌, 미국과 상대국 간 일대일 협상 상호성 원칙: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부과 (관세) 중국 60%, 나머지 국가 10-20% 보편 관세 부과 (대중) 디커플링 기조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철저히 분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멕시코·베트남 등을 통한 우회수출 제재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미국 내 제조업 법인세율 인하: 21% → 15% (통화) 연준 기준금리 결정 개입 (공급망) 온쇼어링 중심: 생산 거점 미국 회귀 (이민) 불법 이민 근절 → 노동력의 이동 제한 (세금) 부유층 세금 감면 (금리) 저금리로 기업투자 확대 (보조금) IRA 인센티브 축소(폐지)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석유·가스 시추 확대 → 친환경 정책 후퇴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제 강화

지정학적 불안 증폭
→ 군비 증강

공급망 불안 재발

화석연료 부상,
친환경 산업 약화

수혜업종

- IT(특히 AI)
- 헬스케어
- 방위산업
- 조선
- 석유화학

피해업종

- 자동차
- 친환경에너지
- 이차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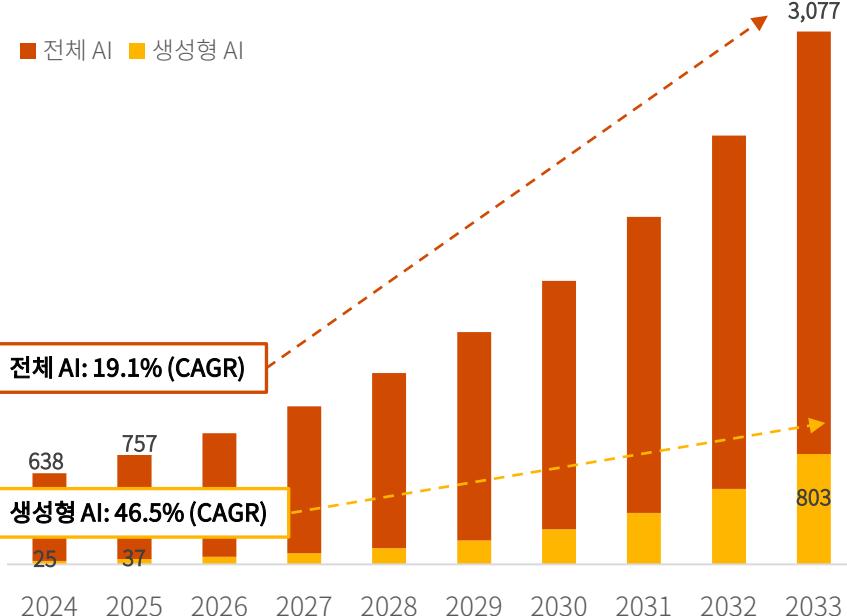
Mega Trend ② 2025년 주목할 핵심 기술: 인공지능(AI) (1/3)

인공지능(AI) 트렌드 상세

- ’22년 Chat GPT 등장 이후 AI 시장 규모 빠르게 확대 중 → ’33년까지 글로벌 AI 시장 연평균 성장률(CAGR) 19.1%, 생성형AI는 46.5% 전망
- 특히, ’25년에는 생성형 AI 시스템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AI Agent 기술 상용화가 실현되어 AI 시장 견인 전망
 - AI Agent란 인간 개입 없이 스스로 환경을 인식하고, 데이터 분석 및 학습을 통해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성형 AI 시스템 기반의 기술. 사용자의 명확한 명령과 데이터 입력 없이 작업 수행이 가능해 ‘지능형 디지털 기술’로 불림
 -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25년 AI 핵심 기술로 AI Agent를 꼽았으며, ’25년 빅테크 중심으로 AI Agent 서비스 본격화 예정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단위: 십억달러



Source: Precedence Research,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 빅테크 AI Agent 서비스 출시 동향

기업명	서비스명	특징	발표* / 출시
마이크로 소프트	Magentic-One	총괄 AI Agent가 다수의 보조 Agent를 지휘하여 복잡한 작업 수행	‘24년 11월 발표
	Copilot Studio	MS 365 Copilot과 연동하여 AI Agent 생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잡한 업무 가능한 자율 Agent 직접 구축 및 프롬프트 입력 없이 효율적 업무 진행 - Agent library 활용하여 반복적인 작업 수행하는 Agent 구축 	‘24년 11월 출시
오픈AI	Operator	웹 브라우저에서 인간 대신 자율적으로 작업 수행	‘25년 1월 출시
	Swarm	자율 AI Agent 간 협업 및 조정	‘24년 11월 발표
구글	AI Agent Space	AI Agent 구축 및 배포할 수 있도록 돋는 기업용 AI Agent 생태계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글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에 ‘AI Agent Space’ 카테고리 추가 	‘24년 11월 출시
앤티로픽	Computer Use	AI가 사람처럼 컴퓨터를 자율적으로 조작	‘24년 10월 발표

* 제품 출시 전 Pre-Launching 단계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Mega Trend ② 2025년 주목할 핵심 기술 : 인공지능(AI) (2/3)

인공지능(AI) 트렌드 상세

■ AI의 높은 기술 성숙도와 융합 가능성으로, ① AI 중심 (In-AI), ② AI 적용 (With-AI), ③ AI 미래 (Beyond-AI)* 기술이 활성화될 전망

- AI 중심(In-AI): AI 기반으로 산업계 변화를 촉발하고 산업 간 경계 재편 및 통합하는 기술
- AI 적용(With-AI): AI 기술이 적용 및 내장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산업 분야
- AI 미래(Beyond-AI): AI를 넘어서 다음 기술 혁신을 주도할 기술 테마와 기술 영역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키워드

* 그 해의 기술 트렌드와 미래 기술 전망을 확인해볼 수 있는 CES의 2025년 전시 기술/제품과 혁신상 수상 기업을 분석하여 올해 주목해야 할 기술을 In-AI, With-AI, Beyond-AI로 구분함

2025년 주목할 'In-AI (AI 중심)' 핵심 기술

구분	키워드	AI 중심의 접목 기술	2025년 부각될 기술
In-AI AI 중심 기술	초연결	5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G/6G와 엣지 AI의 결합 → 작업 지역 시간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어 원격 수술이나 자율주행 등 고도의 서비스에 적용 가능 • 5G, 엣지 컴퓨팅, 클라우드 AI의 결합 → 데이터 실시간 수집 및 분석하여 상황 제어가 가능한 스마트 팩토리 확대
		내장 기술 (Embedded technolo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디바이스와 기기에 AI 기술 내장 → 실시간 데이터 처리 지원 및 초연결 인프라 효율성 제고
		중장비 및 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으로 특정 공정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 및 기계류
	Biz-model 혁신	로보틱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탑재 로봇 → 특정 환경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고 적용하며,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로봇/기기/인간과 실시간 소통 및 협력하는 능력 확보
		푸드 및 애그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 주문 관리 시스템, 정밀농업, 스마트 주방관리, 개인화된 식단 및 조리 등 원재료 생산·조달·조리·배달 분야
		뷰티 및 개인 맞춤 케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활용한 맞춤형 제품 추천, 피부 분석 및 진단, 신제품 개발 등 추진
		패션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통한 디자인 혁신, 생산 최적화, 쇼핑 경험 개선, 재고 관리 및 공급망 최적화 등 추진
	AI 리스크 & 보안	사이버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기술 등



Mega Trend ② 2025년 주목할 핵심 기술 : 인공지능(AI) (3/3)

인공지능(AI) 트렌드 상세

2025년 주목할 'With-AI (AI 적용)’ 핵심 기술

구분	키워드	AI 적용 산업	2025년 부각될 기술
With-AI AI 적용 기술	모빌리티	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율 비행, 교통 관리,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 등 AI 활용
		차량기술 및 첨단 모빌리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적용해 차량 상태 분석 도구, 실시간 교통 데이터 분석 커넥티드 카(통신망 연결 차량), 전기차 항공 등에 AI 기술 적용
		차량용 엔터테이먼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성형 AI 탑재해 차량 내 디스플레이 조절, 탑승객 맞춤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공
		스마트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모빌리티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디지털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병 전 예방 중심의 AI 기술 기반한 '예측형 헬스케어'로 패러다임 전환 비침습적 건강 모니터링, 맞춤형 의료서비스, 정신 건강 관리 기술 분야에 AI 적용
	라이프스타일	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통한 자동 콘텐츠 생성, AI 기반 테스트 및 버그 탐지, 게임 환경과 캐릭터에 AI 지능 부여하여 몰입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스마트홈: 가전 기기와 시스템 원격 제어 및 사용자 행동 패턴 분석하여 맞춤형 서비스 제공 AI 피트니스: 맞춤형 운동 계획 제공 및 운동 자세와 동작 실시간 분석해 피드백 제공 AI 펀테크: 개인 소비 패턴 분석해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의심스러운 거래 감지 및 보안 강화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시스템의 에너지 효율성 개선 AI 기반 공기 정화 기술, 친환경 에너지 기술, 배터리 기술, 에너지 저감기술

2025년 주목할 'Beyond-AI (AI 미래)’ 핵심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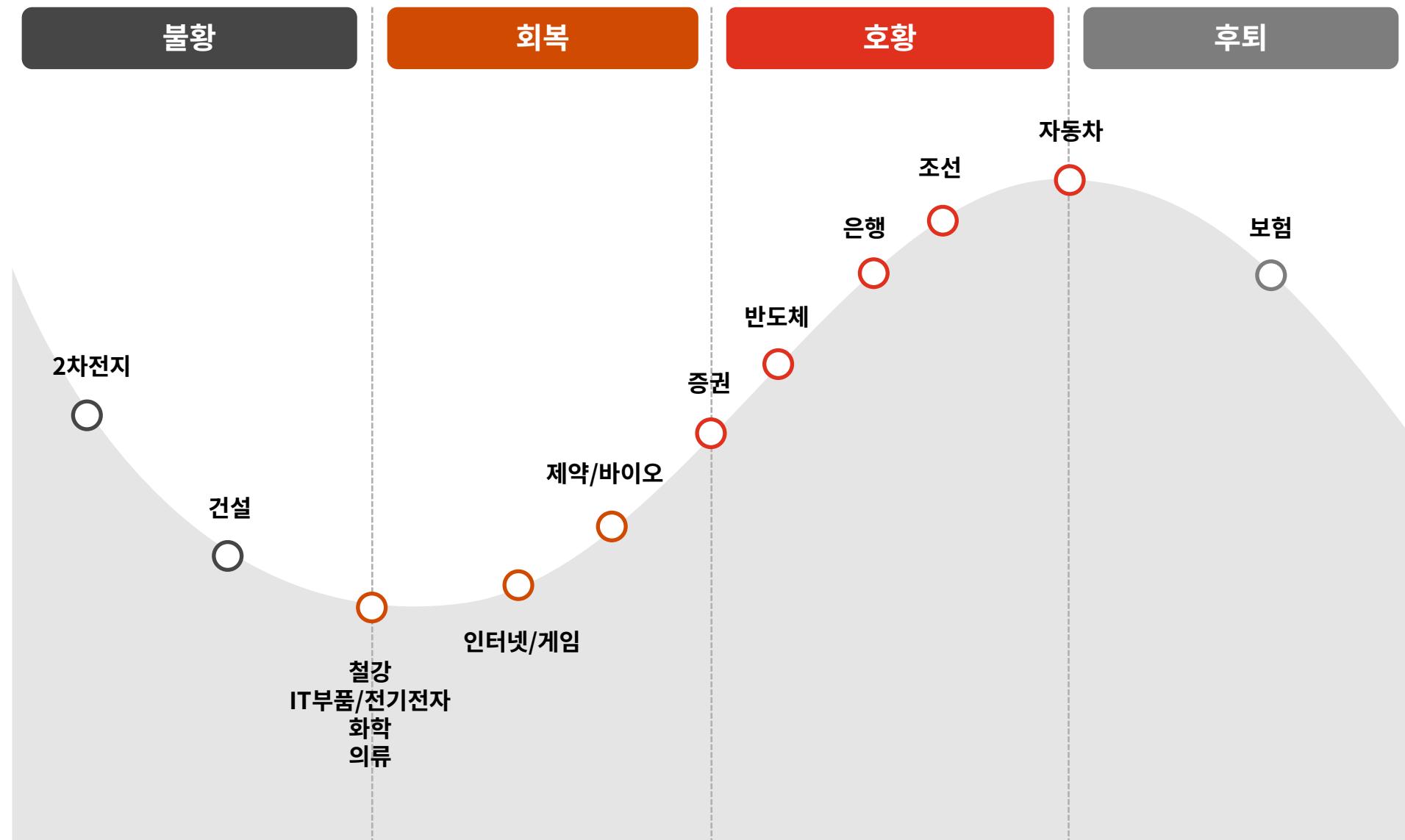
구분	키워드	AI 넘어선 미래 기술	2025년 부각될 기술
Beyond -AI AI 미래 기술	공간컴퓨팅	메타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와 함께 3D, 디지털 트윈 등 콘텐츠 고도화
		XR 기술 및 액세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기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플랫폼, 부품 제조업체 간 협력과 경쟁 발생
	인간안보	모두를 위한 인간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포함 모든 혁신 기술에 인간이 직면한 문제 해결 강조
		고령친화테크(Age Tech)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가 있거나 고령의 사용자들이 일상 생활을 더 편리하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돋는 기술 확대

Global M&A Industry Trends: 2025 Outlook

산업별 M&A Trend 및 2025년 Outlook



[Industry Map] 국내 산업별 업황 점검



[Industry Map] 국내 산업별 업황 점검: 실적

- '24년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IT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이 시장 회복을 견인. 은행, 자동차, 조선 업종의 실적도 양호
- '25년은 IT 성장·소재 부문 회복 기대하나, 대외 환경(수출 기저효과 및 트럼프 2.0下 통상 조건 악화) 고려 시 실적 전망치 하향 가능성 높음
 - 실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규모 증설에 따른 경쟁 격화로 화학·철강 등 Cyclical 산업에서 기존과 같은 구조적 회복 기대는 어려움

전 업종 실적 현황 및 전망

(단위: 조 원)	매출액					영업이익					
	'22	'23	'24E	'25E	YoY	'22	'23	'24E	'25E	YoY	
전 업종	2,635	2,647	2,777	2,938	6%	206	164	259	313	21%	
에너지/자원/유트리티	에너지	362	352	350	362	3%	25	14	11	19	64%
	화학	117	116	112	123	10%	6	3	2	6	193%
	철강	130	122	115	118	2%	8	6	4	5	26%
	운송	86	77	86	90	4%	16	6	9	8	-12%
	유트리티	137	146	146	151	4%	-30	-2	12	16	36%
산업재	자동차	334	380	398	415	4%	21	33	35	36	3%
	건설	95	107	108	106	-2%	5	4	4	5	25%
	기계	70	84	85	92	7%	4	6	6	7	25%
	조선	44	57	69	77	12%	-3	1	3	6	79%
소비재	음식료	77	80	84	88	5%	4	4	5	5	11%
	유통	87	83	86	90	5%	2	2	2	3	24%
	화장품, 의류	60	56	59	64	8%	5	5	5	6	22%
	호텔, 레저	4	5	6	7	9%	-0	1	1	1	25%
헬스케어	건강관리	25	26	30	34	15%	3	4	4	6	58%
금융	은행						29	29	32	33	2%
	보험						11	10	12	12	2%
IT/통신	반도체	363	304	383	421	10%	53	0	60	72	21%
	소프트웨어	55	54	58	63	9%	5	5	6	8	28%
	통신서비스	57	58	59	61	3%	4	4	4	5	52%
	디스플레이	31	26	31	32	1%	-2	-2	0	1	1,851%

Sources: Quantwise, 전체 상장사 대상('25.01.31 기준), 연결 재무제표

* '24~'25년 컨센서스 존재하는 기업 한정. 총 512개사로, 전체 상장사 매출 중 69%('23년 기준) 차지

1 소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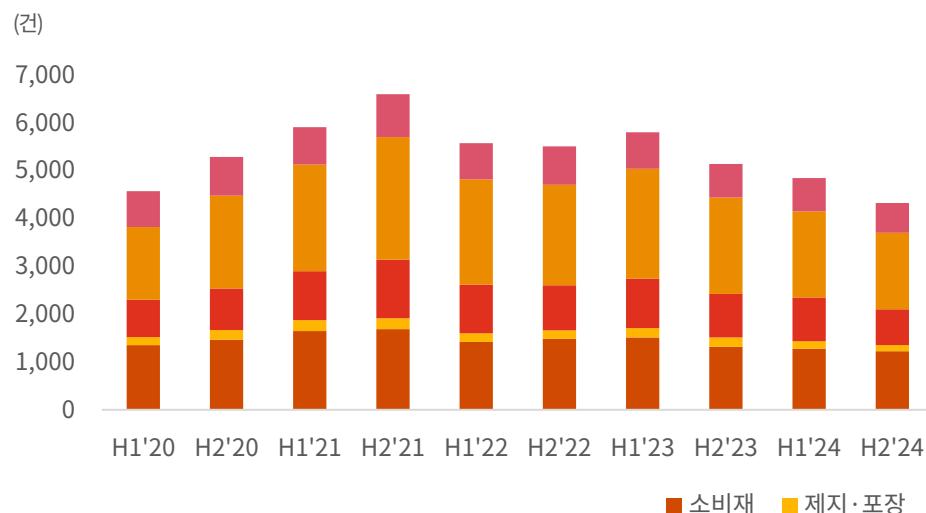


[소비재] 2024년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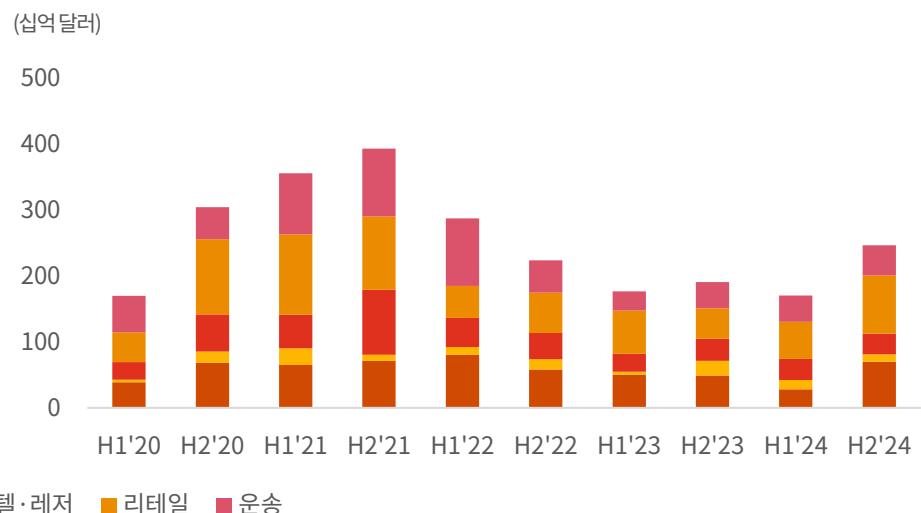
- 24년 글로벌 소비재 M&A 거래 건수는 전년 대비 감소한 9,167건(YoY -16%) 기록했으나,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한 4,171억 달러(YoY +13%)
 - M&A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8%, +5%) 대비 거래 건수는 유사한 수준이지만 거래 금액은 개선
 - 팬데믹 이전과 비교시에는 메가딜 회복 안 되었지만, 전년 대비로는 메가딜이 증가해 거래 금액이 정상화 궤도로 올라가는 중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리테일 +29%, 운송 +24%, 호텔·레저 +6%, 소비재 -1%, 제지·포장 -7% 순으로 변동
 - 리테일은 전년 대비 거래 건수(YoY -21%)는 감소했으나 거래 금액(YoY +29%) 증감폭이 가장 큰 섹터. '24년 가장 큰 딜인 일본 세븐홀딩스(387억 달러) 매각 영향
 - 운송은 Schenker AG 메가딜(158억 달러)로 전년 대비 거래 건수는 -10% 감소, 금액은 24% 증가. '19년 대비로는 건수 -32%, 금액 -31%로 업황 및 투심 회복 미진

소비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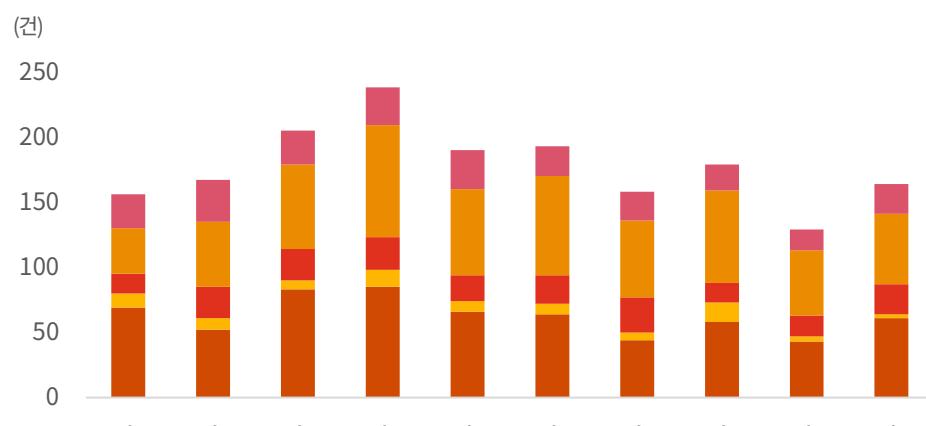


[소비재] 2024년 M&A Review: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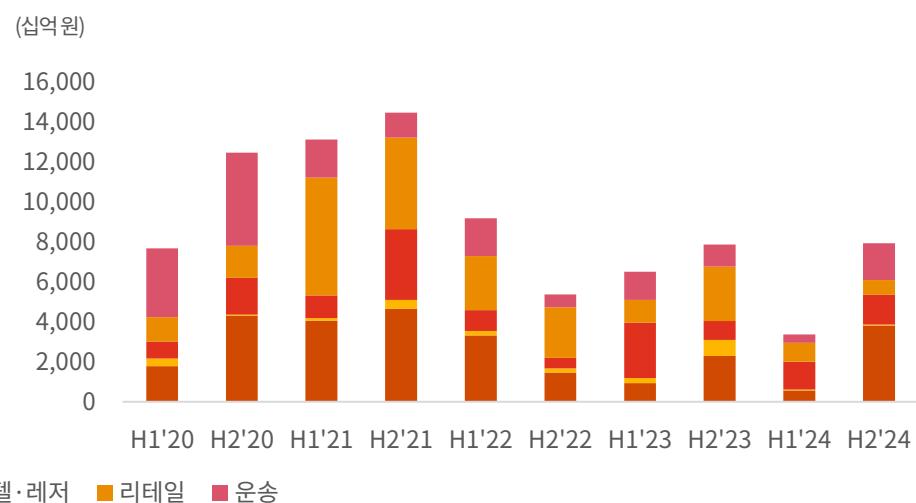
- '24년 국내 소비재 부문 M&A 거래 건수는 293건(YoY-13%), 거래 금액은 11조 3천억 원(YoY-21%)으로,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2%, +30%) 대비 부진
 -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도 대폭 감소한 추세(건수 및 금액 각각 -16%, -24%)
 - 저성장에 따라 소비심리 둔화되며 '24년 소매판매액은 21년 만에 최대 폭 감소. 내수 부진 심화되며 소비재 부문 M&A 침체 지속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소비재 +35%, 운송 -11%, 호텔·레저 -23%, 리테일 -56%, 제지·포장 -92% 순으로 변동
 - 소비재는 유일하게 전년대비 거래 금액(YoY+35%)이 증가했으나, '매각의사 없음'으로 최종 정리된 한국인삼공사 건(1.9조 원) 제외 시 전년 대비 -28% 감소
 - 호텔·레저는 엔데믹 이후 여행 및 관광 수요 회복에 따라 '19년 대비 거래 금액 57% 증가했지만, '23년 기저효과로 전년 대비로는 거래 금액이 -23% 감소
 - 오프라인 채널부터 이커머스까지 소비심리 침체와 중국발 저가상품 공세로, 리테일 섹터 거래 금액 전년대비 -56%, '19년 대비 -63%로 큰 폭 감소
 - 제지·포장은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 및 전년 대비 모두 거래 건수 및 금액이 크게 감소하여 회복 동력이 불명확

소비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소비재] 2025년 M&A Outlook: Global

- 소비심리는 여전히 불안정하나 글로벌 인플레이션 둔화 및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기업 성장과 수익성 개선 목적 M&A 활황 전망

M&A 주요 테마

- 성장 전략: 인플레이션 둔화 및 금리 안정화로 업황 개선 전망 → 기업 성장과 시장 지배력 확대 위한 M&A 활성화
- 수익성 중심 거래: 수익성 개선 위한 포트폴리오 통합 및 유동성 확보 목적 자산 매각
- 부실기업 M&A: 특히 패션업계 중심으로 재무 건전성 높은 기업이 부실기업 인수 증가 전망

2025년 M&A Hotspots

1 음식료

- 인플레이션 안정화로 소비자 수요 증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이에 따라 음식료 업황 개선 전망
- 포트폴리오 수익성 강화 위해 주요 기업 중심으로(유니레버, 레킷 등) 대규모 분할 매각 추진 예고

3 반려동물

-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요 확대 지속
- 반려동물 케어 부문 M&A 활발 전망

5 포장

- 전세계 친환경 규제 강화 및 원자재 원가 상승 등으로 그동안 포장업계 난항 겪었으나, '25년에는 시장 상황 안정될 전망 → 포장업계 M&A 거래 증가 예상

2 건강식품

- '24년 대형 딜 거래 흐름 올해도 지속 전망 → 선별적 인수 및 매각 활성화
- 최근 분사되거나 매각된 건강식품업체가 M&A 통한 비즈니스 성장 견인할 전망

4 관광

- 소비심리 회복세로, 호텔을 중심으로 한 M&A 활발
-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24년 글로벌 관광업 99% 회복했으며 '25년도 회복세 지속 (UN 관광기구)
- 소비자 선호도가 경험형 레저(게임, 스포츠)로 변화됨에 따라, 관련 수요 증가로 투자 증가 전망

6 패션

- 소비심리 하락으로, 패션업계 불황 지속. 이에 따라 재무 건전성 높은 기업 중심으로 부실 기업 인수 활발해질 전망

[소비재] 2025년 M&A Outlook: 국내

▪ 소비 침체 지속 및 내수시장 한계에 따른 기업들의 탈출구 찾기 지속: 수요처 확대(해외) + 효율성 증대(신기술 접목)

- 수익성 개선 위한 비핵심산업 조정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성장 동력으로 해외 시장 공략. 특히 K-Culture의 확산은 국내 소비재 산업의 성장 돌파구
- AI·빅데이터 등의 신기술 접목한 개인맞춤형 쇼핑, 초개인화 화장품 등 부상. 또한 생산과정 자동화 진행되며 로봇 확산

2025년 전망 및 M&A 전략: 소비재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치상 인플레이션은 진정되었지만, 고 환율에 따른 수입 물가 및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음 저성장과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매채널 부진 지속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은 외형 성장보다는 수익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몇 년에 걸쳐 희망퇴직, 점포 및 사업부 조정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진행. 비용 구조 개선으로, 향후 소비 회복 구간에서 매출 성장 상회하는 이익 증가 기대 - 온라인: 쿠팡·네이버를 제외한 나머지 이커머스 업계 실적 악화 지속되는 가운데, 수익성 위주 전략과 함께 알리익스프레스·지마켓 합자와 같은 다양한 돌파구 모색 	<p>수익성 향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차대조표 개선 위한 자산 매각(비핵심산업, 점포, 부동산 등) 및 사업부 통폐합 지속 규모의 경제를 위한 이커머스업계 내 M&A <p>미래기술 접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화(로봇)에 대한 투자로 인건비 감축 AI 도입을 통한 고객맞춤형 쇼핑 추구
음식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가 상승률 둔화 및 원재료비 하락으로 이익 상승 사이클 진입 예정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음식료 내수 시장은 성장 한계에 봉착. 이에 대한 돌파구로 해외 진출 활발. 또한 K-Culture 확산과 함께 향후 해외 시장의 중요도가 부각될 전망 주요 음식료 업체들은 늘어나는 해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Capa 확대 진행. 또한, 관세전쟁 가능성에 따라 해외 현지 공장 증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p>해외 시장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공략 위해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생산시설 및 유통채널 확보를 위한 M&A <p>푸드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높아진 인건비 및 고령화 대비하여 공장 자동화 지속되며, 생산/조리로봇 부상 대체식품 및 스마트팜에 대한 중장기 투자
화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품 산업의 성장은 수출이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화장품의 중국 의존도 낮아지고 수출국가 다변화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장품 수출 비중: '19년 중국+홍콩 61% → '24년 중국+홍콩 30%, 미국+일본 29%. - K-Culture의 확산, 온라인 채널부상으로 화장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 중소형 인디브랜드 강세 지속되는 가운데, 신기술 접목한 개인맞춤형 뷰티테크 부상 	<p>브랜드 다각화 및 제조기술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장품사 및 PE들의 인디 브랜드 매수 지속 제조기술 확보를 위한 OEM/ODM 관심 <p>뷰티테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한 초개인화 화장품 및 홈뷰티 디바이스 부상

산업별 M&A Trends 및 2025년 Outlook

2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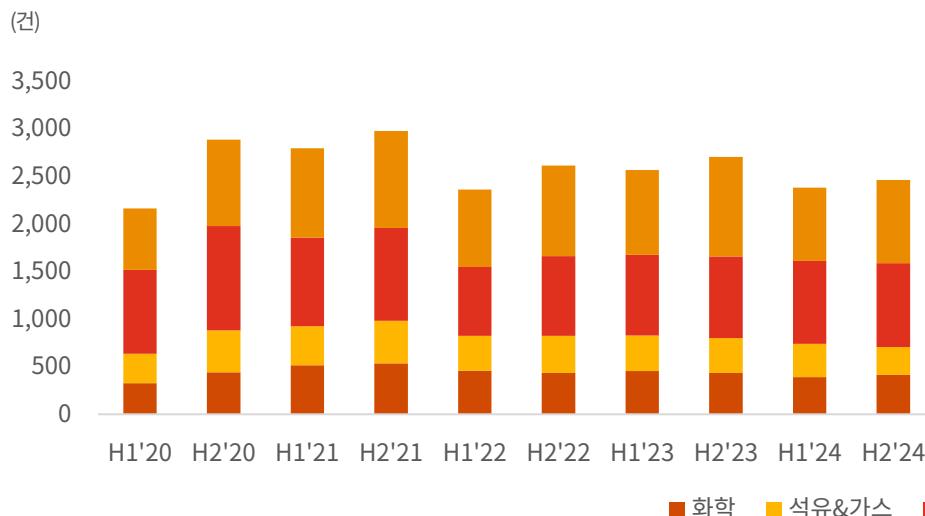


[에너지·유ти리티 및 소재] 2024년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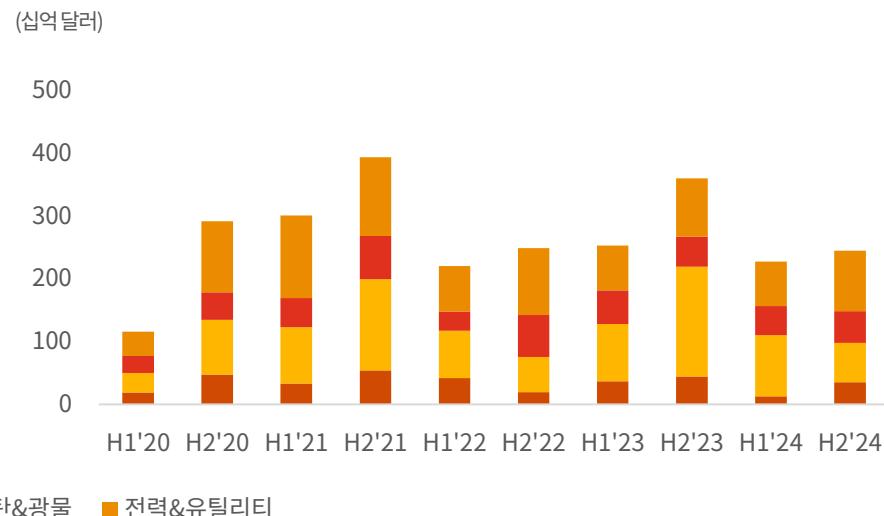
- '24년 글로벌 에너지·유ти리티·소재(EUR) 부문 M&A 거래 건수는 4,841건(YoY -8%), 금액은 4,717억 달러(YoY -23%) 기록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18%, +5%) 대비 거래 건수는 선방했지만 금액은 큰 폭 부진.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 시 거래 건수와 금액 각각 +1%, -18% 증감
 - '24년 메가딜은 10건으로 '23년 16건에 비해 감소. '24년 섹터 내 가장 큰 딜은 260억달러 규모로, '23년에 500억 달러 이상 딜이 두 건이었던 것과 비교 시 부진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전력&유ти리티 +2%, 석탄&광물 -5%, 석유&가스 -39%, 화학 -41% 순으로 변동
 - 전력&유ти리티는 EUR 부문에서 유일하게 거래 금액이 증가. AI 슈퍼사이클에 데이터센터 확보 및 이에 수반되는 전력 수요 급증. 또한 탄소포집 기술이나 소형 원자력 기술에 대한 시장 관심 지속되며 투자심리 긍정적
 - 화학, 석유&가스는 전년 대비 거래 건수 각각 -9%, -13%, 거래 금액 각각 -41%, -39%로 감소폭이 큰 섹터. 다만, 트럼프 정부의 전통 에너지 강조 및 금리인하 기조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반등 조짐

에너지·유ти리티 및 소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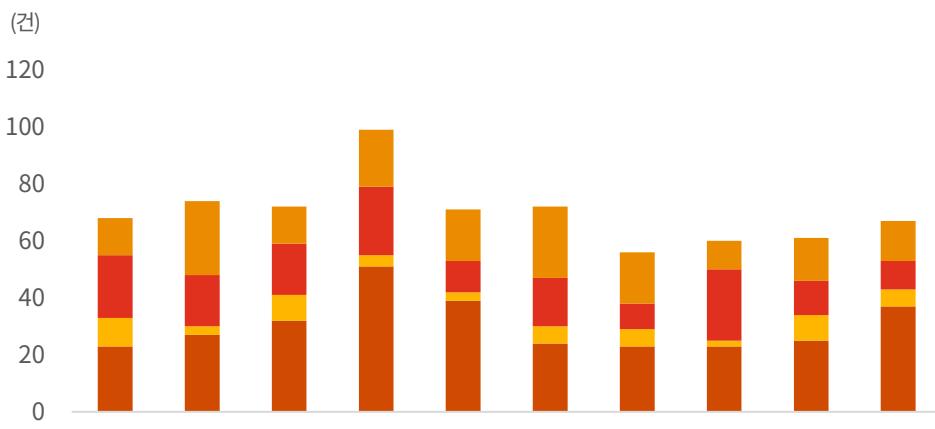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에너지·유ти리티 및 소재] 2024년 M&A Review: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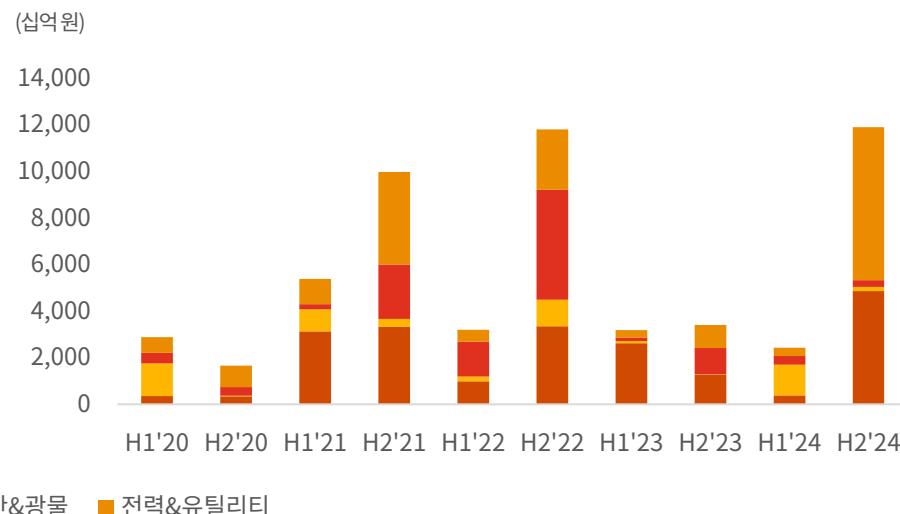
- '23년 국내 에너지·유ти리티·소재(EUR) 부문 M&A 건수는 128건(YoY +10%), 금액은 14조 2천억 원(YoY +117%) 기록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2%, +30%) 대비 크게 선방한 실적을 보였으며, 거래 금액 측면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 1위 섹터를 달성
 - 한국 메가딜 Top 1,2,3위를 차지하는 SK그룹의 리밸런싱이 EUR 섹터에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석유&가스 +1,542%, 전력&유ти리티 +428%, 화학 +33%, 석탄&광물 -48% 순으로 변동
 - 석유&가스는 거래 건수(YoY +88%), 거래 금액(YoY +1,542%) 모두 가장 큰 폭 증가를 기록. 이는 '24년 국내 최대 딜이었던 SK이노베이션의 SK E&S 흡수합병(약 6.2조원)과 E&S도시가스의 상환전환우선주 재발행(약 3.1조원) 건의 영향
 - 석탄&광물은 거래 건수(YoY -35%), 거래 금액 (YoY -48%) 모두 큰 폭 감소. 석탄 및 광물 가격 하락에 업황도 부진할 뿐더러, 국내 석탄&광물 섹터 주요 기업인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싸움으로 딜 성사 부진

에너지·유ти리티 및 소재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5년 M&A Outlook: Global

- 청정 에너지 전환, 전쟁 종식 기대감, 기술 발전으로 M&A 모멘텀 상승. 주요 관심사는 ① 핵심 광물, ② 화석연료 vs. 청정에너지, ③ 산업 간 상호 의존성

M&A 주요 테마

- 핵심 광물:** 재생에너지, 그리드 현대화에 필수 요소인 핵심 광물 투자 및 M&A 확대
- 화석연료 vs. 청정에너지:** 트럼프 2.0의 화석 연료 선호 정책과 글로벌 청정 에너지화 노력 사이 충돌 → 균형 추구가 M&A의 핵심 이슈
- 산업 간 상호 의존성:** 에너지 및 유틸리티가 제조업·건설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활용되고 산업 간 의존성이 높아짐. 이에 따라, 경쟁력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산업군과의 M&A·전략적 제휴·파트너십 증대

2025년 M&A Hotspots

1 광물

- 금리 인하로 조달 환경 개선 + 청정에너지 전환 지속 → 핵심 광물 중심의 M&A 증가 전망
 - 금값 상승 및 탐사 제한 등으로 채굴 가능량 감소되며, 금광 기업 인수 활발
 - 원자력에너지 수요 증가와 소형모듈 원자로 도입 확대로, 우라늄 M&A 촉진
- 자본 집약적 신규 프로젝트 시작보다, 자산 인수 통한 운영 리스크 최소화 추세
- 중국 의존도 낮추려는 미국 정책下 핵심 광물에 대한 미주 지역 투자 기회 확대

2 화학

- 인플레이션 완화, 금리 인하, 재고 감소 등으로 M&A 거래 증가세 → 글로벌 공급망 재조정, PE 매각 증가 등으로 M&A 촉진될 가능성 ↑
- 주요 지역별 상황: 미국과 중국·중동은 긍정적, 유럽은 하향 전망
 - 미국: 트럼프 2.0 아래 리쇼어링, 인센티브, 첨단 에너지 인프라, 저렴한 원료 접근성 등으로 M&A 활기
 - 중국: 경기 회복과 우호적 정부 정책 토대로 M&A 회복 조짐
 - 중동: 국영 석유 기업과 국부펀드의 화학업체 인수 추세
 - 유럽: 높은 생산 비용으로 M&A 침체 전망. 일부 크래커 공장 폐쇄

3 석유/가스

- 화석연료 기반의 전통 에너지 수요 대응 vs.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사이의 균형적 접근 강조
 - 석유업체들 업스트림, 미드스트림, 유전 서비스 통합 지속
 - 유럽은 에너지 안보와 탈탄소화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M&A 핵심 이슈

4 전력/유틸리티

- AI,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고속 성장으로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급등
 - 청정 에너지 사용이 강조됨에 따라, 원자력 기술·탄소포집 등 혁신적 재생 에너지 관련 투자 및 M&A 활성화 전망
-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지만, 트럼프 2.0의 반환경주의 정책으로 화석 연료 관련 M&A 또한 부각될 전망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5년 M&A Outlook: 국내

▪ 포트폴리오 전환이 필요한 시점: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 사업 확대

- 구조조정: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빅딜, 설비 합리화(과잉설비 통폐합) 필요
- 고부가가치/친환경/신기술 적용 확대: 고기능성 제품 개발, 탄소중립 위한 투자, AI·빅데이터·로봇 등 활용한 비용 최적화 진행

2025년 전망 및 M&A 전략: 에너지·유틸리티·소재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정유/화학	<p>[정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석유수요 부진, 유가 하향 안정화 → 정제마진 축소, 재고평가손실 등 비우호적 업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글로벌 석유 수요 -0.6% 감소 vs 공급 +0.5% 증가 - 미국의 세일 오일 생산 증가, OPEC+의 자발적 감산 종료로 유가 하향 안정화 전망 또한, 중국 내수 수요 부진에 따른 수출쿼터 확대 시, 국내 정유사 수익에 악영향 <p>[화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發 공급과잉, 중동의 COTC 본격 가동 등으로 국내 석유화학업은 기존의 경기 및 수급구조에 의한 Up&Down Cycle이 아닌, 구조적 하락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 트럼프 2.0의 화석연료 부흥책으로 단기적 실적 개선 예상되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엔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유화학 공급과잉은 심각한 수준이며, 트럼프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해결 불가 - 다만, 문제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다소 확보한 것은 긍정적 석유화학업종의 장기 불황에 대응하여 다양한 자구책 모색 진행 	<p>구조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잉설비 통폐합을 통한 설비 합리화 <p>고부가가치/친환경 사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기능성(스페셜티) 제품 확대를 위한 투자 트럼프 2.0 정책 영향으로 친환경 사업 확대 다소 지연될 가능성 있으나, 중장기 관점에서 탄소저감 및 친환경플라스틱 성장 유효

[에너지·유틸리티 및 소재] 2025년 M&A Outlook: 국내 계속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철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조적 공급과잉 속 수요부진으로 수급 불균형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부동산 침체에 따라 중국산 철강 밀어내기 확대 →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 또한, 국내 건설업 수요 부진으로 국내 철강 업종에 불리한 환경 지속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라 미국 수출 불확실성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25%, 캐나다-멕시코 50%(보편 25% + 중국 우회수출 패널티 25%) 관세 부과 단기적으로는 악재이나, 미국 철강 수입 내 비중 (캐나다-멕시코 35% vs 한국 9%) 고려시, 향후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에 기회가 될 수도 있음 	<p>고부가소재 개발, 제품 고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 경량화 소재, 기가스틸 등 제품 고도화 <p>탄소중립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중립 위한 전기로 조강 확대 → 전기로의 필수 원료인 철스크랩 관련 밸류체인 전 단계 생태계 구축 필요 수소환원 기술 투자 <p>관세 전쟁 대응하여, 현지 생산 기업/공장 M&A</p>
운송	<p>[항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 전반 양호한 실적 유지되는 가운데, LCC 경쟁구도 개편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FSC(대형 항공사): 견조한 여객수요, 화물시황 연착륙 기조, 유가 및 금리 하락 등에 힘입어 안정적 이익창출 예상. 대한항공-아시아나 양사 간 시너지로 추가 이익 기대 LCC(저비용 항공사): 단거리 여객기 인도 재개 및 운임 하락 등을 감안할 때 전년 대비 수익성 저하가 예상되나, 중국 노선 회복 등 긍정적 요소가 상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으로 통합 LCC(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장하며, 경쟁격화 전망. 이에 따른 LCC 내 인수합병 및 지분구도 변화 예상 <p>[해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수요 둔화 및 무역 분쟁은 해운업에 부정적. 다만, 선종별 영향은 상이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탱커선: 홍해 사태, 러-우 전쟁, 낮은 신조선 공급부담 감안 시 운임 방어 가능할 것 벌크선: 장기계약 중심 선대운영, 수요-공급 균형 고려 시 양호한 영업실적 예상 컨테이너선: 누적된 공급부담과 신조선 인도 스케줄 감안 시, 상대적으로 큰 운임하락 전망 EU 중심 환경 규제 강화 지속. 다만, 미국의 반환경주의 정책 등 고려 시 글로벌 차원 경제적 규제 도입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 	<p>규모의 경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공) LCC간 통합, 경쟁구도 재편 <p>미래형 운송/ 디지털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UAM 등 미래 운송수단 개발을 위한 투자 및 제휴 데이터 기반 운송 대응력 강화: 수요 분석 통한 운영 프로세스 효율화, 최적 경로 모색 AI/빅데이터/로봇 등 활용한 물류프로세스 운영 최적화 <p>탄소중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연료 기반 운송수단, 탄소포집 등 투자

산업별 M&A Trends 및 2025년 Outlook

3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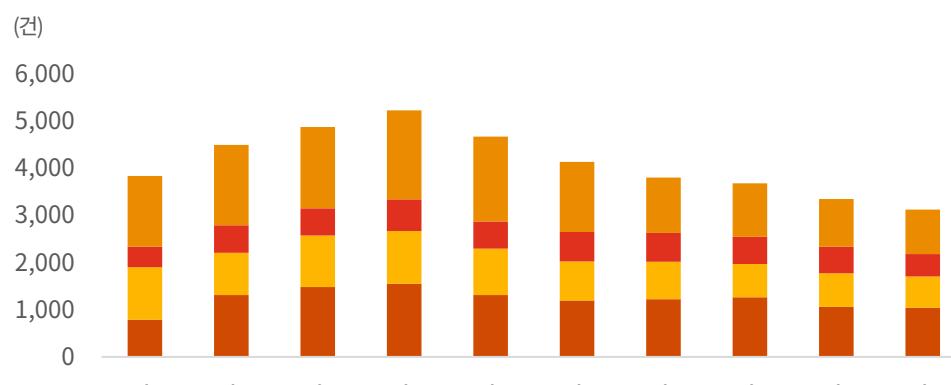


[금융] 2024년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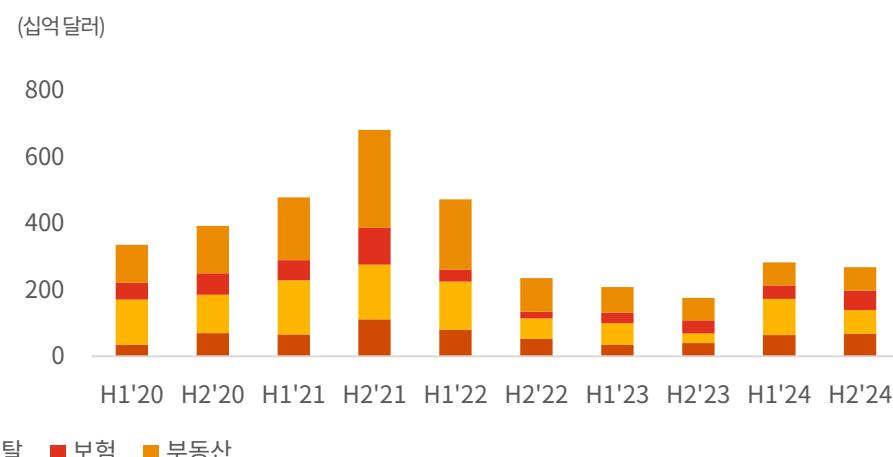
- **'24년 금융 부문 M&A 거래 건수는 6,485건(YoY -13%), 거래 금액은 5,497억 달러(YoY +43%) 기록**
 -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8%, +5%) 대비 건수는 소폭, 금액은 큰 폭 선방. 단, '19년 대비 거래 건수 및 금액 각각 -27%, -20% 감소
 - 거래 건수 대비 금액 증가폭이 매우 큰 양상을 보였던 것은 주로 메가딜 증가에 기인. '23년 단 3건에 불과했던 금융 메가딜이 '24년 16건으로 증가 + 보험 부문 6건, 자산관리 5건, 은행&캐피탈 5건 기록
- **'24년 주요국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으로 차입비용이 감소되고, 은행 부문 M&A 제약 요인도 다소 완화. 스페인 BBVA와 Banco Sabadell 합병과 같은 규모의 경제 추구, HSBC의 프랑스 상업은행 사업 매각 등 포트폴리오 최적화를 위한 딜 진행**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은행&캐피탈 +89%, 자산관리 +78%, 보험 +39%, 부동산 -3% 순으로 변동**
 - 전 섹터에서 전년 대비 거래 건수 감소, 거래 금액은 부동산 부문 제외하고는 큰 폭 증가. 포트폴리오 최적화 등 금융 부문에서 메가딜 활발. 미국에서는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타 지사는 규제가 지속될 것 고려해 특정 지사·사업을 철수할 가능성이 높아짐
 - 부동산업체들의 높은 부채수준 및 금리 부담으로 부동산은 유일하게 전년 대비 거래 금액 감소

금융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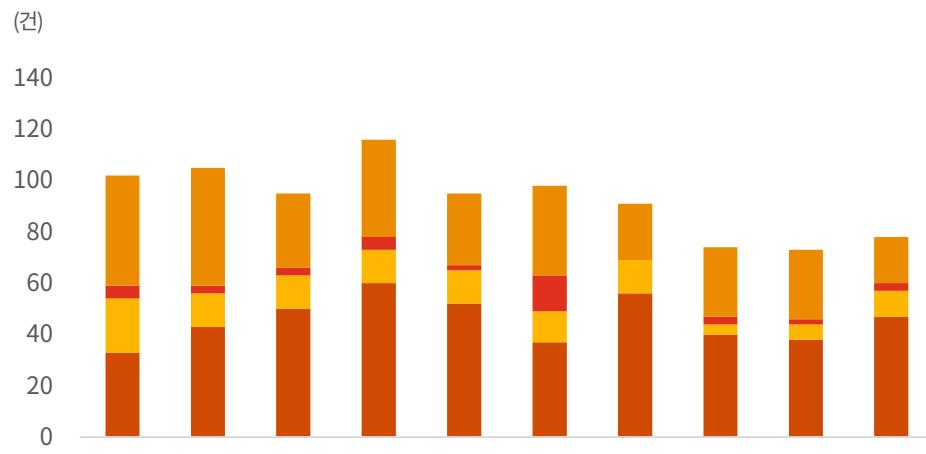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금융] 2024년 M&A Review: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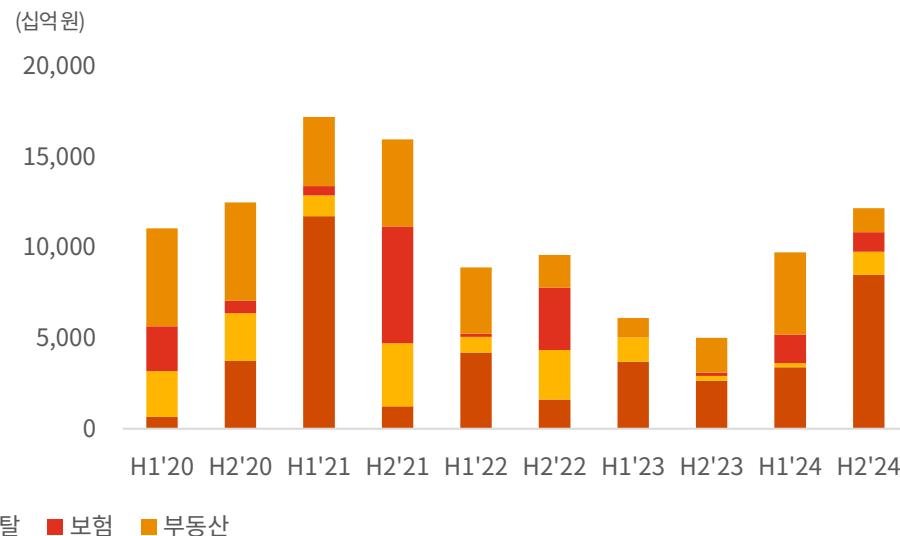
- '24년 국내 금융 M&A 거래 건수는 151건(YoY -8%), 거래 금액은 21조 9천억 원(YoY +97%)으로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2%, +30%) 대비 금액 선방
 -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 거래 건수는 -25% 감소, 거래 금액은 +25% 증가. 24년은 금융 부문 대형 딜이 다수 발생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보험 +1,422%, 부동산 +96%, 자산관리 +87%, 은행&캐피탈 -8% 순으로 변동
 - 보험 거래 금액 급증은 우리금융지주의 ABL(2,654억원)·동양생명(1조2,840억원) 인수 영향
 - 부동산은 글로벌 시장과 다르게 거래 금액이 크게 증가. 금리인하 기류로 매물 적체 해소되며, 리츠사의 상업용 빌딩 거래 및 운용사들의 데이터센터·물류센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짐
 - 자산관리는 전년 대비 거래 건수는 -11% 감소, 거래 금액은 +87% 증가하며 PE들의 활발한 투자 및 Exit 활동을 반영

금융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금융] 2025년 M&A Outlook: Global

- 금리 인하 및 규제 완화 등의 환경개선으로 M&A 회복 전망. 주목해야 할 영역은 ① 규모의 경제, ② 사모크레딧, ③ PE, ④ 전략적 파트너십

M&A 주요 테마

- 규모의 경제:** 인수 및 통합을 통해 고정 비용 분산하고, 고객 서비스 등을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
- 사모크레딧:** '24년 1.7조 달러 → '28년 2.4조 달러로 고성장 전망. 이에 따라, 상품 다양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 위한 M&A 활성
- PE: (Buy side)** 보험 중개, 자산관리/서비스 기업, 커미션 기반 확장 가능 비즈니스에 집중
(Sell Side) LP의 투자 회수 압박 증가에 따라 PE의 보유 포트폴리오 매각 증가
- 전략적 파트너십:** 수익 증대 및 비용 구조 최적화 위해,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계약/제휴 중심의 전략적 파트너십 지속

2025년 M&A Hotspots

1 은행

- 금리 인하로 차입 비용 낮아지며, 규모의 경제 및 경쟁력 확보 측면 M&A 확대
 - 디지털 투자와 규제 준수 비용 증가 → 인수 및 통합을 통해 고정 비용 분산시켜 규모의 경제 달성
 - M&A 통해 금융 서비스 확대 및 신규 수익원 발굴해 경쟁력 확보
-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 자산 매각하여 핵심 역량 집중 및 구조 간소화
- 부실자산(NPL) 매각 통해 대차대조표 강화 및 자본 비율 개선 노력

2 자산운용사

- 대형 운용사 중심으로 규모 및 지역 확대, 금융상품 다양화 위한 M&A
- 암호화폐·블록체인·지속가능한 투자 역량 확보 위해, AI 등 기술 투자 및 관련 기업 인수 집중
- 금융투자 서비스 확대 위해 비유동성·대체상품에 대한 관심 고조. 이에 따라, 신흥 자산군(emerging asset class) 중심의 플랫폼 출시를 위한 파트너십 또는 전략적 제휴 진행
- 인도·중동·중국 등 고액자산가 증가 지역 서비스 확대 위해 M&A 추진

3 보험

- 보험 증가 및 MGA(대행대리점) 시장이 여전히 분산되어 있어, 통합 지속 예상
- 생명 및 연금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비용 낮추고 재투자 자본 확보 위해, 폐쇄형 펀드 매각 증가 전망
- 인슈어테크(Insurtech: IT기술과 접목된 보험업) M&A 또는 전략적 제휴, SaaS 연계를 통한 디지털화 집중

4 핀테크

- 그동안 서비스 강화를 위해 투자해왔던 SaaS, 고객 확인 자동화(KYC) 등에서 수익화 발생. 이에 따라 하위 부문에서 M&A 기회 확대 전망
 -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국내외에서 이용 가능한 디지털 결제 및 송금 서비스 니즈가 확대됨에 따라, M&A 통한 서비스 역량 확보 및 해외 시장 진입
 - AI 기반의 디지털 대출 M&A 활발 전망
 - 전자 송장, 미지급/미수금 처리 등 Biz 프로세스 관련 M&A 활성

[금융] 2025년 M&A Outlook: 국내

▪ 금리 하락기 진입에 따라 건전성 우려 다소 완화되며, 디지털 전환과 신사업에 대한 투자 가속화 전망

- 디지털 전환: AI 적용 확대, 온라인 채널 강화를 위한 비금융사업부 제휴 증대, 빅데이터 투자 지속
- 신사업 및 해외 투자 증가: STO(토큰증권)·디지털 자산·BaaS 등 금융 연관 신사업 뿐 아니라, 시니어주택 등의 비금융 부문도 진출 활발

2025년 전망 및 M&A 전략: 금융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IM 하락 및 대출 규제는 은행 이익에 부정적이나, 대손비용 부담 완화가 해당 영향을 상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 NIM 하락 전망 -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산 성장은 제한적 - 금리 하락과 함께 부동산 PF대출 부실 우려 감소, 금융당국의 경기 대응 충당금 버퍼 완화 등 대손비용 관련 부담이 경감되는 추세 • 신규 수익원 발굴을 위한 신사업 추진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핀테크, BaaS(서비스형 은행) 등에 대한 관심 지속 	<p>구조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PF 리스크가 다소 경감됨에 따라, 한동안 이연되었던 부실화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 진행 예상 <p>신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aaS 확대 위한 온라인 사업자 합작-제휴 • STO(토큰증권), 디지털 자산 등의 신영역에 대한 관심 지속 • 비금융 신사업 진출: 헬스케어/ 시니어케어 등 <p>디지털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적용 확대: CS를 넘어 업무 전반 AI 접목 • 온라인 채널 강화: 자체 플랫폼 강화 및 비금융사업부 제휴 확대 • 빅데이터 투자: 상품개발·심사·마케팅·리스크관리 등의 영역에서 빅데이터에 대한 중요성 부각되며,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 <p>해외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라 국내 성장성 둔화 → 해외 금융사 인수에 대한 관심 지속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년간의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제2금융권 실적 악영향. 수신 기능 없는 제2금융권의 특성상 조달비용 증가했으며, 부동산 PF 부실화로 대손비용에 직격타 • '25년은 금리 인하에 따라 조달 비용 하락, 충당금 적립 규모 감소되며 실적 개선 전망. 또한, 증권은 금리 하락으로 인한 주식 거래대금 증가 및 트레이딩 수익 개선 기대 • 수익 회복에 따라 '기존 사업 리스크 관리 → 디지털 전환/ 신사업'으로 관심 전환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 정체 속, 제도강화와 금리 하락으로 재무 변동성 및 자본비율 관리 부담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 저축성보험 판매감소, 변액보험 수요 축소로 수입보험료 성장세 둔화 (손해보험) 인구 고령화 등으로 건강·시니어보험 중심 장기보험 신계약 양호 - 시장금리 하락하는 가운데, 보험부채 할인율 및 계리적 가정 규제 강화는 부담 •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 추진 중. 이에 따라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헬스케어/ 시니어주택 등 다양한 신사업 모색 	

4

헬스케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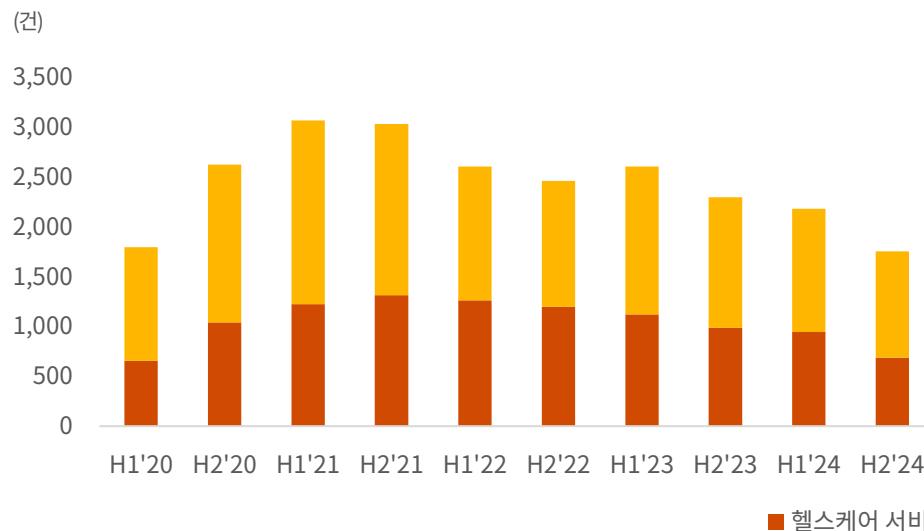


[헬스케어] 2024년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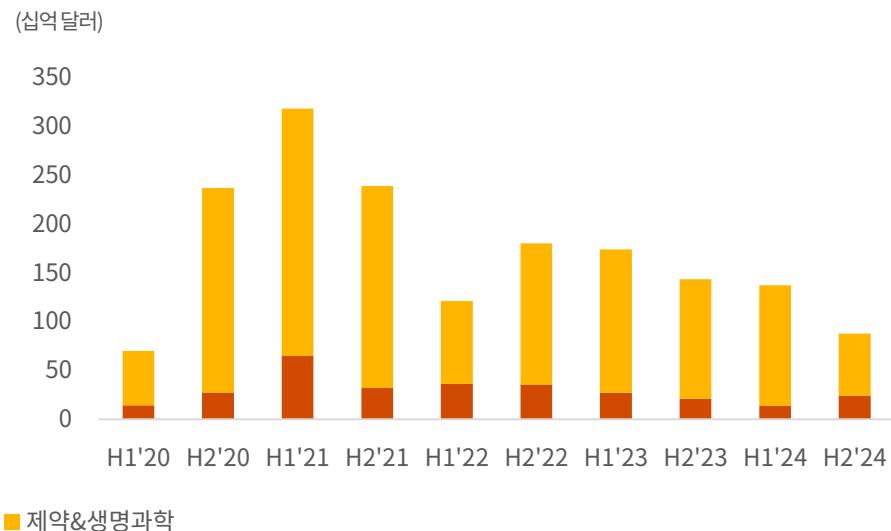
- '24년 글로벌 헬스케어 M&A 거래 건수는 3,937건(YoY -20%), 금액은 2,252억 달러(YoY -29%) 기록
 - 글로벌 시장 전체(건수 및 금액 각각 YoY -18%, +5%) 대비 부진.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는 건수 12% 증가, 금액 -50% 감소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 -21%, 제약&생명과학 -31%로 동반 부진
 - 헬스케어 서비스 거래 건수와 금액 각각 YoY -22%, -21%로 부진. 제약&생명과학 또한 건수와 금액 모두 YoY -18%, -31% 감소하며 전반적 업황 부진
 - 메가딜이 크게 부진. 50억 달러 이상의 메가딜이 '23년 10건이었던 것에 비해 '24년 2건으로 감소
 - 가장 큰 거래는 Novo Holdings의 CDMO 기업 Catalent 인수 건(165억 달러)이며, 해당 딜을 통한 Capa 증가로 비만 치료제 위고비·오젬피 생산량 증가 기대

헬스케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 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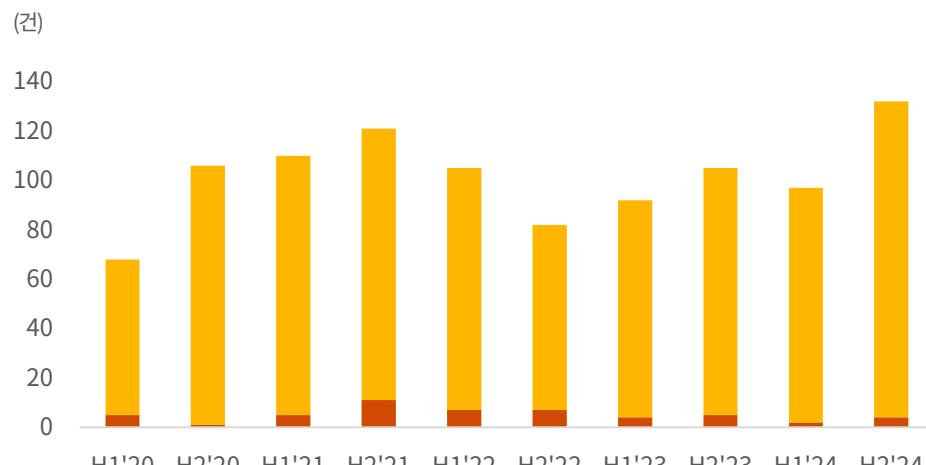


[헬스케어] 2024년 M&A Review: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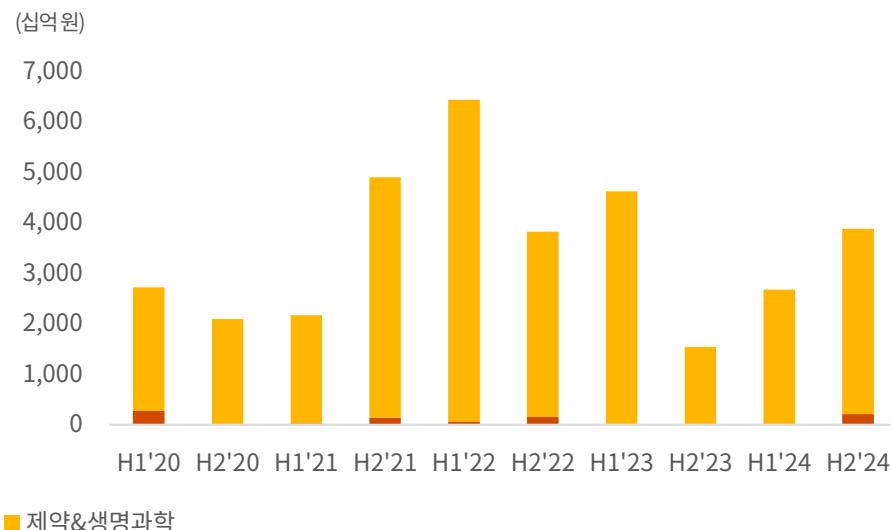
- '24년 국내 헬스케어 부문 M&A 건수는 229건(YoY +16%), 금액은 6조 5천억 원(YoY +6%)'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2%, +30%) 대비 거래 건수는 높으나, 중소형 딜 위주 거래로 금액은 상대적으로 부진.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는 대폭 증가한 수치(거래 건수와 금액 각각 +70%, +151%)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 +1,781%, 제약&생명과학 +2%로, 매우 상이한 실적을 보임
 - 국내는 의료 권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부족으로, 글로벌 대비 헬스케어 서비스 부문의 성장이 미진. 헬스케어 섹터 내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래 금액 기준 3%에 불과하여, 글로벌(17%)과 비교 시 시장 초기 단계. 따라서 전년 대비 큰 폭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M&A 금액은 여전히 미미한 수치
 - 반면 제약&생명과학 부문은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이전 계약 및 CDMO 사업 확장 진행되며, M&A 회복 기조

헬스케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헬스케어] 2025년 M&A Outlook: Global

- 금리 하락 및 미국 중심 규제 완화에 힘입어 M&A 시장 강세 전망. ① Cross border 거래, ② 비핵심 자산 매각, ③ IPO, ④ 디지털 혁신에 주력

M&A 주요 테마

- Cross border 거래:** 미국 관세 인상 및 중국 VBP(의약품 대량구매 정책) 대비 필요 → 제조 시설 이전, 해외 기업과의 파트너십 및 라이선스 등 국경 간 운영 문제 해결 위한 M&A 거래 상승
- 비핵심 자산 매각:** 비핵심 저성장 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 건전성 강화 및 투자여력 확보
- IPO:** 금리 하락 및 주가 상승에 힘입어 IPO 검토 확대
- 디지털 혁신:** 비용 효율성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 위해 디지털 자산·AI 기반 서비스 M&A 활동 증가

2025년 M&A Hotspots

1 제약 및 생명공학

- 트럼프 2.0에 따른 관세 인상 및 중국 VBP 대응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또는 라이선스 거래 등의 Cross border 거래 확대 전망
- 생명공학 분야의 뚜렷한 임상 결과와 높은 시장 잠재력 토대로, 중소규모 업체 중심의 M&A 활발 전망
 - M&A 트렌드: 초기 단계(1상 및 초기 2상) 임상 기업은 부분 인수, 후반 단계(후반 2상 또는 3상) 임상 기업 및 승인 획득 기업은 완전 인수에 초점
 - 특히, 종양학(Oncology) 분야 강세: 생명공학 전체 M&A 거래의 45% 차지. PE, 제약사 투자 참여 활발
- 제약업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자산 매각을 통한 자금 확보. 불필요한 R&D 비용 축소 및 공급망 단순화로 재무 상태 개선
- GLP-1(당뇨 및 비만치료제) 및 심혈관 대사 분야 강세
 - 신규 치료법 시장 출시 예상돼, 생산 능력 확장 및 포트폴리오 재편 필요
 - M&A 통해 제약 활성 성분(API) 및 완제품 생산 능력 강화
- 추가 자본 확보 위해,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의 IPO 추진 전망

2 헬스케어 서비스

- 최근 분사되거나 매각된 비처방 일반의약품 및 컨슈머헬스 기업들, M&A 통해 경쟁력 강화 및 미래 성장 동력 확보해 나갈 전망
 - 대형사 저성장/비핵심 사업 분리하기 위한 포트폴리오 재검토
 - PE 소유 기업 중 수익성 높은 파이프라인 시장 매물화 될 전망
- 디지털 투자
 - 인력난 및 의료원가 인플레이션, 정부 지원 감소 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디지털 기술 부상: 원격 진료, 헬스테크, 디지털 의료분석

[헬스케어] 2025 M&A Outlook: 국내

- **대내외적으로 우호적 헬스케어 산업 여건下, 바이오 및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직접투자 및 M&A 증가 전망**
- 트럼프 2.0의 헬스케어 정책(생물보안법, 바이오시밀러 사용 통한 약가인하책 등)은 국내 바이오시밀러·CDMO 기업에게 기회로 작용할 전망
 -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통제약사 및 대기업의 바이오 부문 투자 지속
 - 신약개발 및 판독/진단, 개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AI 투자 증가

2025년 전망 및 M&A 전략: 헬스케어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제약/ 생명공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빅파마와의 라이선스-아웃 계약을 통해 국내 제약/바이오의 기술력 입증 • 트럼프 2.0의 헬스케어 정책에 따라 한국 제약/바이오업체 수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생물보안법* 제정 가능성이 대두되며, 중국 CDMO의 대안으로 한국이 부상 - 또한, 트럼프 정부는 직접 약가 협상은 축소/폐지하고, 바이오시밀러 및 제네릭 사용 촉진을 통한 간접적 약가 인하를 유도. 이에 한국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수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활동을 제한하고,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와 바이오 기술이 중국 정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법안. 공화-민주 공동 발의 • 국내 대기업 바이오 투자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D현대: 아산병원 활용해 AMC사이언스(암, 면역질환 등에 대한 치료제 개발) 설립 - LG화학: 바이오 부문 증설 지속. 질병 치료 뿐 아니라 미용 부문도 강화 	<p>파이프라인 및 신성장 동력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 제약사: 파이프라인 및 신성장동력 확보 위한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기업, CDO/CMO 인수 관심 • 대기업: 향후 그룹 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부문에 대한 투자 지속 <p>디지털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약 개발 및 판독/진단분야 AI 기술 투자 • 의료 빅데이터 분석 및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위해 AI 기술 접목
헬스케어 서비스	<p>[헬스케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데이터 확보를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진행 • AI 접목을 통한 판독/진단기술, 예방의학 관심 <p>[컨슈머헬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질병 예방에 대한 관심 증가로 컨슈머헬스 산업 인기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시장 규모 6.4조원 추정. 저속노화 유행에 젊은 층의 소비 증가 • 다만, 과열 경쟁과 단기 유행에 소비자 피로도 증가 → '22년부터 시장 정체. 신시장 개척 필요 	<p>컨슈머헬스: 신시장 진출 모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건, 에스테틱 의료기기 등 Health&Beauty 분야에 관심 집중 • 내수 시장 경쟁 심화로 프리미엄 제품 개발, 해외 진출, 일반 의약품과 연동 등 새로운 전략 모색

산업별 M&A Trends 및 2025년 Outlook

5 산업재 및 자동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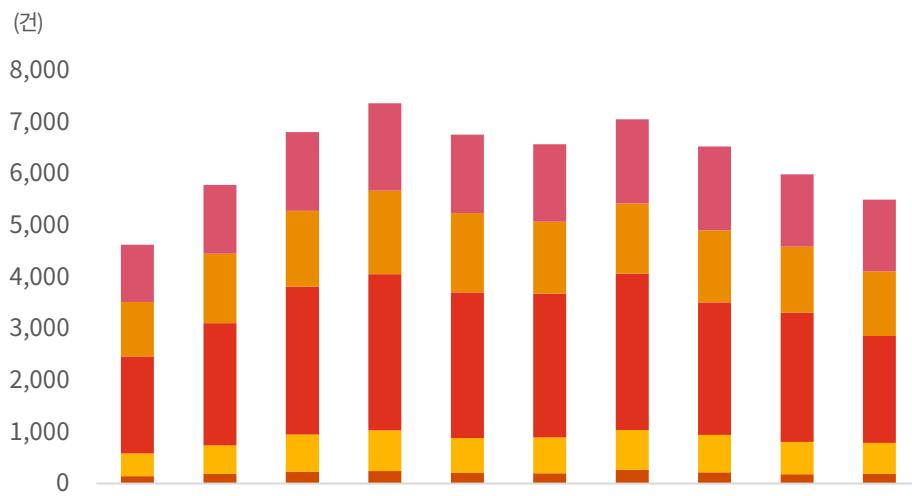


[산업재 및 자동차] 2024년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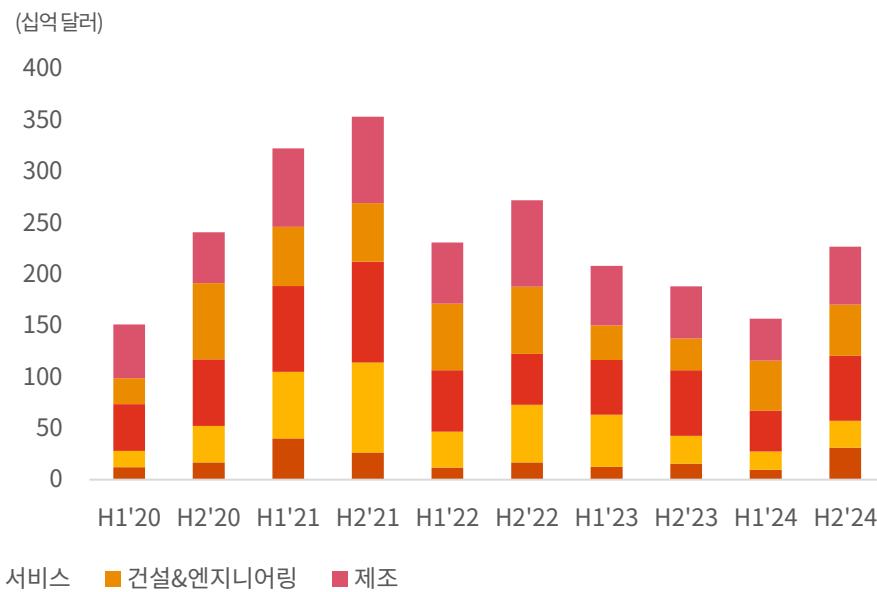
- '24년 산업재 및 자동차의 M&A 거래 건수는 11,486건(YoY -15%), 거래 금액은 3,836억 달러(YoY -3%)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18%, +5%) 대비 거래 금액 부진. 팬데믹 이전인 '19년과 비교 시 거래 건수는 +4% 증가한 반면 금액은 -36% 감소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건설&엔지니어링 +53%, 항공우주&방위 +46%, 제조 -11%, 비즈니스 서비스 -12%, 자동차 -44% 순으로 변동
 - 건설&엔지니어링은 거래 건수(YoY -8%)는 감소한 반면 금액(YoY +53%)은 크게 증가. 상업용 부동산은 여전히 힘들지만 주거용 중심으로 회복세
 - 항공우주&방위는 거래 건수 기준 전년 대비 -25% 감소했지만 금액은 +46% 증가. 글로벌 분쟁에 따른 각국의 국방비 확대 추이를 반영하여 대형 딜 증가
 - 자동차는 전년 대비 거래 건수 -18%, 거래 금액도 -44% 감소하며 부진. 전기차 캐즘 우려가 확산되고, 중국이 관련 시장을 장악하면서 M&A 활동 급감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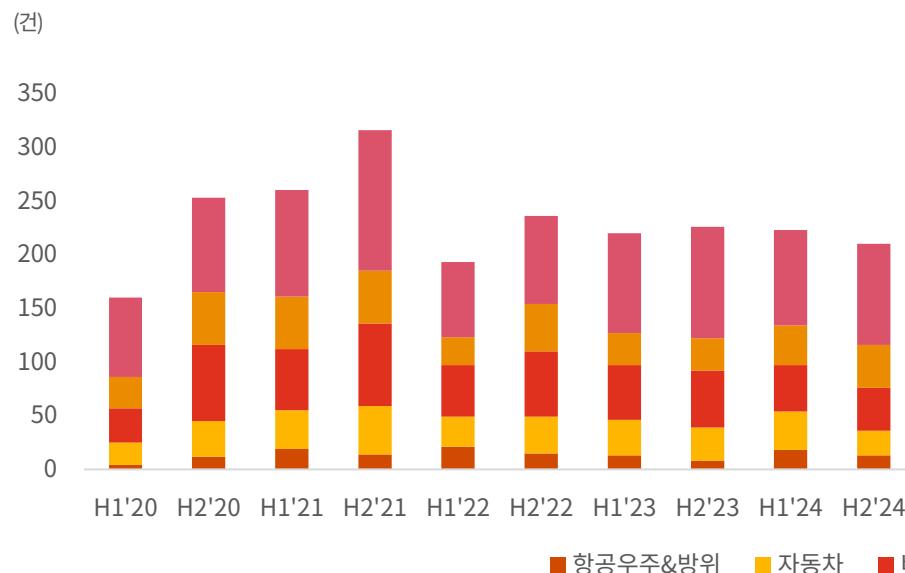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산업재 및 자동차] 2024년 M&A Review: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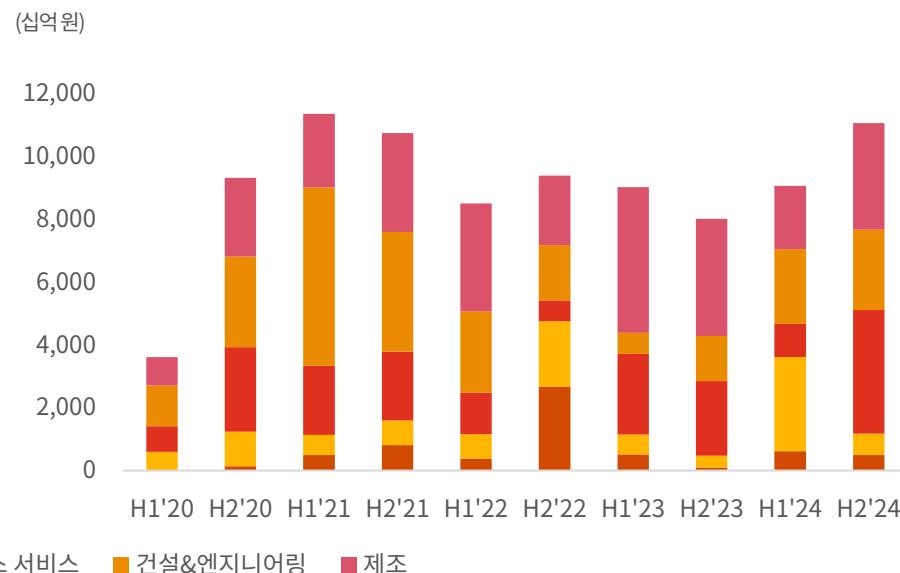
- '24년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의 M&A 거래 건수는 433건(YoY -3%), 거래 금액은 20조 1천억 원(YoY +18%)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2%, +30%) 대비 부진했으나,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로는 거래 건수 +1%, 금액은 +12% 증가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자동차 +263%, 건설&엔지니어링 +134%, 항공우주&방위 +82%, 비즈니스 서비스 +1%, 제조 -36% 순으로 변동
 - 자동차는 거래 건수가 전년비 -8% 감소했으나, 대형 딜 영향으로 금액은 +263% 증가. 업종 내 대형 딜은 한국타이어의 한온시스템 인수(약 1.3조원)로, 해당 딜을 통해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자산 기준 재계 30위권 등극
 - 항공우주&방위와 건설&엔지니어링은 거래 건수, 금액 모두 증가하며 중소형 딜 위주 회복 흐름
 - 제조업은 유일하게 거래 건수(YoY -7%), 금액(YoY -36%) 모두 감소한 섹터

산업재 및 자동차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산업재 및 자동차] 2025년 M&A Outlook: Global

- 성장 촉진과 경쟁력 강화 위해 M&A 증가 전망. 주요 관심사는 ① 포트폴리오 최적화, ② 디지털 역량, ③ 지속가능성

M&A 주요 테마

-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자산 및 부채비율 높은 사업부 매각. 특히, 자동차 및 제조/기계 업종 내 매각 및 부실 자산 구조조정
- 디지털 역량:** AI, 자동화, 로봇 공학 및 디지털 전환 등의 신성장 동력 확보
- 지속가능성:** 제조/기계 등의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원자재 사용 위한 공정 전환 지속

2025년 M&A Hotspots

1 항공우주/방위

- 수요증가 충족 위해 공급망 강화 움직임 예상되며, 비핵심 자산 매각하여 상업 항공 및 정부 계약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 → 소·중 규모 M&A 거래 증가
- 러-우 전쟁, 중동분쟁 등 지정학적 불안이 트럼프 2.0으로 증대됨에 따라 국가별 방위비 증가 전망 → 탄약 산업 활황 및 방위 산업 공급망 강화 위해 원자재 공급업체 인수 활발
-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여행 수요 충족 위해 상업 항공 부문 M&A 증가 예상

2 자동차

- 생산 과잉, 마진 감소, 소비심리 위축으로 업황 난항 → M&A 거래 증가 전망
 - 생산 과잉 억제 위해 자산 분할 및 매각 추진. 마진 관리 위해 전략적 인수 및 수익성 낮은 지역 매각 전망
- 기존 차량모델 수명 주기 후반기 진입에 따라 규모의 경제 축소 전망 → 경쟁력 확보 위해 ICE 자산 매각 재검토 및 EV 자산 투자 필요
- 신성장 동력 확보: AI 등 디지털 기술 탑재 첨단 모빌리티, 친환경 전기차 등

3 건설/엔지니어링

- 금리 부담 완화로 주택 중심으로 건설 M&A 활성화 전망
 - 저가 주택 수요 증가로 주택 부문 투자 증가
 - 상업용 건설은 프로젝트 정체·마진 축소·부채 디플트 리스크 등으로 업황 난항 예상되나 데이터센터 건설 및 친환경 에너지 부분은 거래 활성화 전망
- 생산성 향상 및 프로젝트 관리 효율화, 자원 할당 최적화, 안전 기준 향상 위해 AI 도입 증대 및 관련 업체 M&A 활발

4 제조/기계

- 운영 간소화 및 핵심 비즈니스 집중 추세 → 카브아웃(Carve-out) 매각 및 부실 자산 구조조정 증가 전망
- 지속가능성: 바이오플라스틱, 재활용 나일론 등 지속가능 원자재 사용 공정 전환
- 신성장 동력 확보: 제조 분야 운영 효율성 위해 AI, 예측 로보틱스, 스마트팩토리 도입 증대 및 관련 업체 M&A 증가 예상

[산업재 및 자동차] 2025년 M&A Outlook: 국내

- 산업별 업황은 상이하나, 미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 기조는 동일. 주요 관심사는 포트폴리오 최적화, 신기술, 공급망 안정화, 친환경
 - 포트폴리오 최적화: 비핵심자산 및 수익성 낮은 사업부 매각 후 자금 확보 → 신사업에 대한 투자
 - 신기술 확보: AI, 로봇, 자율주행에 집중적으로 투자
 - 공급망 안정화: 트럼프 2.0의 전방위적 무역규제 확대로 글로벌 공급망 이슈 재부각 → 미국/EU 등의 주요 판매지역으로 생산공장 이전 및 증설
 - 친환경: 트럼프 정부의 ESG 후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탈탄소화 기조는 강화. 이에 따라, 기존대비 강도는 다소 감소하나,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청정 기술 관심 지속

2025년 전망 및 M&A 전략: 산업재 및 자동차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공급: '25년은 생산 정상화와 함께 '수요자 중심' 시장으로의 완만한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 전년 대비 3.2% 증가한 9,137만 대 전망(팬데믹 이전 수요로 회복하는 첫해) - 공급: 도요타, VW 등의 전통 Player의 점유율 감소 vs. 중국 Maker의 급격한 성장 * 글로벌 시장 내 중국 BYD 점유율 변화: 2020년 0.5% → 2022년 2.3% → 2024년 4.6% • 차종: 캐즘 우려에도 EV 전환은 지속. '25년 전기차 시장 15% 내외 성장 전망 • 트럼프 2.0 통상정책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부정적이나, 자율주행은 규제 완화로 가속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관세, IRA축소/폐지로 국내 자동차 업계 수익성 악화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관세: 현기차 생산 중 미국수출 비중은 13%. 보편관세 10~20% 부과 시 가격경쟁력 저하 ○ IRA 축소/폐지: 보조금 수혜 받던 현기차 리스 부문, 연간 3.6억 달러 추가 비용 발생 - 트럼프의 AI 및 자율주행 관련 규제 완화로 미래 자동차 기술 발전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완전 자율차 연간 배치 한도 2,500대 제한 → (트럼프) 10만 대로 확대 ○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 5까지 규제 완화 시 로보택시 확산 가속화 	<p>포트폴리오 최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차 전환을 위한 ICE 사업부 조정 <p>친환경/ 미래차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주행 관련 기술 투자 및 도로주행 데이터 확보 위한 빅테크 제휴 • 미래차 관련 SW(커넥티드, 차량공유 등) 관련 기업 인수 및 전략적 제휴 •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등)에 대한 투자 <p>공급망 안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관세로 공급망 리스크 재부각. 미국/EU 등 주요 판매 지역으로 생산공장 이전 및 신규 투자 증가 <p>자동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화 및 인건비 상승에 대비 자동화 투자 → AI, 로봇

[산업재 및 자동차] 2025년 M&A Outlook: 국내 계속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형 및 고부가가치 선박 발주 지속되며, 금액 기준 신조발주 규모 4년 연속 증가 ’25년 국내 선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긍정과 우려가 혼재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이 우세하며, 국내 조선사들의 실적 개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려 요소: 중국의 시장 지배력 확대(중국 조선사 MS: ’21년 42% → ’24년 65%) 긍정 요소: 트럼프 2.0은 국내 조선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 해군 군사력 강화, 각국의 군비 증강으로 국내 조선사 특수선 수주 증가 기대 미국 LNG 수출 재개로 인한 LNG선 수주 기회 	<p>CAPA 확대/비용 절감 위해 해외 건조거점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동남아 지역 조선소 인수/임대/하청하여, 생산거점으로 활용 <p>기술력 향상을 위한 R&D 투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외 우수 엔진 및 부품사와의 파트너십, 공동연구, 조선 3사간 기술 협력 탄소저감/고효율 선박 관련 투자: 탄소포집, 친환경 에너지 추진선, 운항효율 최적화(디지털 선박, 무인선박 등) <p>생산 및 공정 효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혁신·효율성·인력난 해소 위한 AI/로봇 투자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글로벌 불확실성에 따른 수주둔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중동 현지 발주 감소, 기존 프로젝트 지연 반면, 러-우 전쟁 종식시 재건사업 관련 수주 확대는 기회 요인 [국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주택 수주 감소, 정치 불확실성으로 SOC 발주 지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도권 vs. 지방 양극화 기조下 전반적인 분양경기 회복에는 시일 소요 전망 착공물량 감소로 인한 건설사 매출 축소 불가피, 원가부담 및 미분양 관련 손실도 실적 제약요인 향후 수주 경쟁 대비해 ‘스마트홈’ 투자 지속 	<p>수익성 중심 포트폴리오 재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향후 고성장 예상 분야(소형 원자력, 폐기물, 신재생에너지 등) 건설에 역량 집중 비핵심사업 매각 <p>구조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 침체 속 유동성 위기 겪는 건설사 및 사업부지 매물화 <p>스마트홈 투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홈 관련 기기·SW·플랫폼에 대한 투자

산업별 M&A Trends 및 2025년 Outlook

6 IT·통신 & 미디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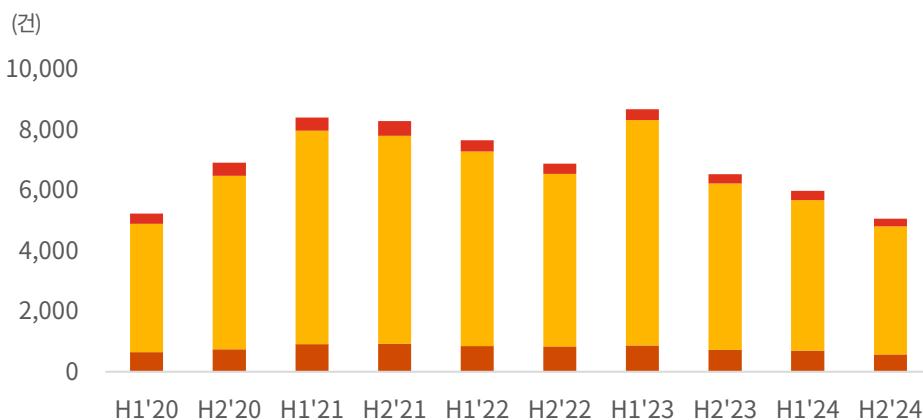


[IT·통신&미디어] 2024년 M&A Review: Glob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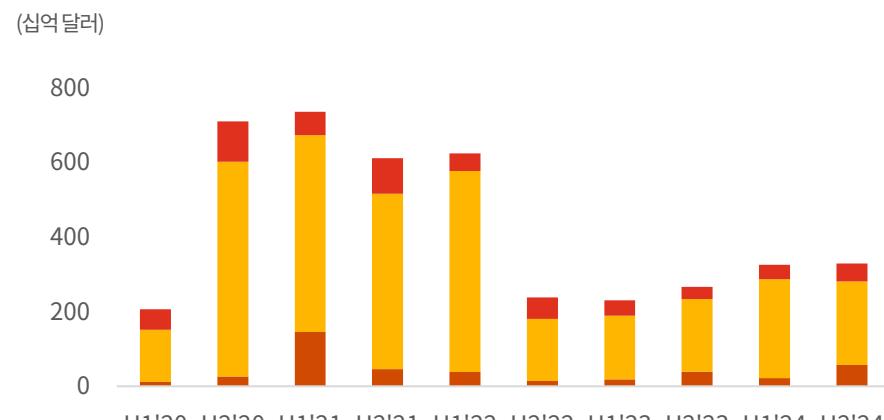
- '24년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 건수는 11,049건(YoY -27%), 거래 금액은 6,554억 달러(YoY +32%)
 - 글로벌 시장 전체(각각 YoY -18%, +5%) 대비 거래 건수는 다소 부진하나 거래 금액은 큰 폭 상회. '19년 대비로는 거래 건수, 금액 모두 +5% 증가
 - '24년 메가딜은 26건으로 '23년 11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하며, 활발한 거래 진행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미디어&엔터테인먼트 +39%, Tech +33%, 통신 +19% 순으로 증가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하반기 거래 금액 급증(+160%). 프랑스 비방디 사업 분할, 컴캐스트의 NBC유니버설 케이블 TV 분사 등 기존 미디어 사업 재편의 영향
 - Tech는 IT·통신&미디어 섹터 내 거래 건수의 83%, 거래 금액의 75%를 차지하며 절대적 영향력 행사
 - + Tech 내 거래 금액 65%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부문이 전년 대비 거래 금액 +38% 증가
 - + 반도체는 AI 핵심 수혜 업종으로, 더 많은 기업이 반도체 회사를 인수 중.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IT 서비스 부문도 M&A 활발
 - 통신 부문은 포트폴리오 최적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 신사업 영역으로는 위성이 주목받고 있음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Global

거래 건수



거래 금액



■ 미디어&엔터테인먼트 ■ 테크 ■ 통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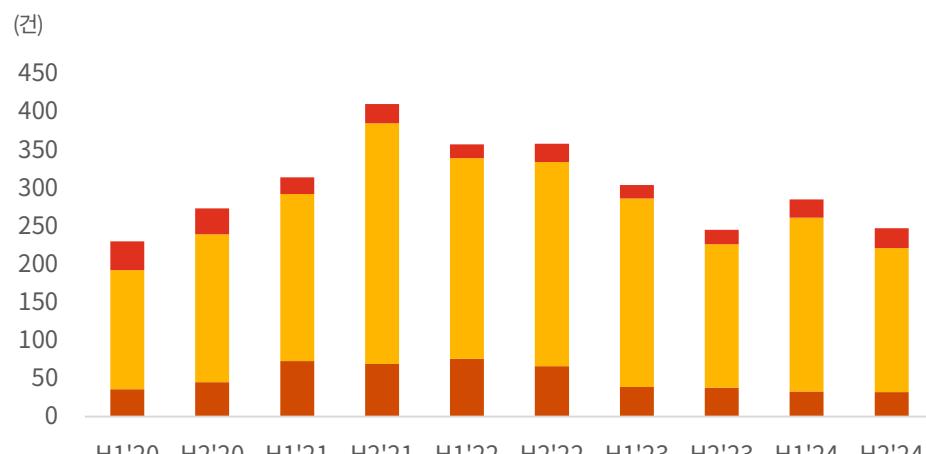
Sources: LSEG, Dealogic and PwC analysis

[IT·통신&미디어] 2024년 M&A Review: 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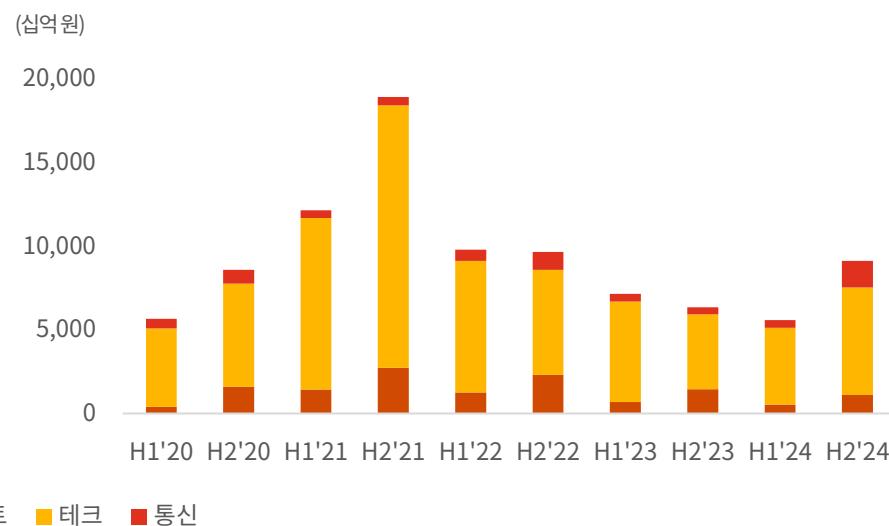
- '24년 국내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 건수는 532건(YoY -3%), 거래 금액은 14조 6천억 원(YoY +9%)
 - 한국 시장 전체(각각 YoY -2%, +30%) 대비 거래 금액 부진했으며, 팬데믹 이전인 '19년 대비 거래 건수는 +9% 증가한 반면 금액은 -27% 감소
 - AI 붐과 기술 스타트업 호황에 메가딜 수혜를 받은 글로벌과 달리, 한국은 소형 딜 체결 건수가 많음
- 세부 섹터별로는 전년 거래 금액 대비 통신 +136%, Tech +5%, 미디어&엔터테인먼트 -23% 순으로 변동
 - 통신은 전년대비 건수 +35%, 금액 +136%로 큰 폭 증가. 비용 효율화 위한 티맥스데이터 매각(약 1.1조원), SKT의 SK브로드밴드 합병(1.15조원) 영향
 - 섹터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Tech 부문은 전년 대비 거래 건수 -4% 감소, 거래 금액 +5% 증가하며 소폭의 업황 개선
 - 미디어&엔터테인먼트는 전년 대비 건수(-16%), 금액(-23%) 모두 감소하며 전반적 업황 부진. 해외 OTT의 국내 시장 잠식으로 수익성 악화

IT·통신&미디어 산업: M&A 거래 건수 및 금액_국내

거래 건수



거래 금액



[IT·통신&미디어] 2025년 M&A Outlook: Global

- AI 붐과 지속적인 비즈니스 혁신 등으로 '25년 M&A 시장 낙관적. 인플레이션 및 높은 자본 비용, 규제 등이 미국 중심으로 완화되며 유리한 딜 환경 조성

M&A 주요 테마

1. **AI 붐:** AI 붐과 향상된 컴퓨팅, 저장 능력 토대로 소프트웨어·반도체·IT 서비스 등 메가딜 및 전반적 M&A 증가 전망
2. **비즈니스 모델 혁신:** 데이터센터, 위성,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 지속
3. **딜 환경 개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트럼프 2.0 정책下 기술 부문 규제가 완화되며 M&A 환경 개선 → 메가딜까지 연결 전망

2025년 M&A Hotspots

1 소프트웨어

- '24년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규제 강화 등으로 M&A 거래 건수 감소했으나, 대규모 전략적 거래와 플랫폼 거래(platform deals) 중심으로 거래 금액은 증가 → '25년에도 유사한 흐름 지속 전망
-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AI·사이버 보안 등 주요 기술이 M&A 견인

3 반도체

- AI 수요 증가에 따라 GPU 등 특수 반도체 활황
- 반도체 공급망은 AI칩 생산 중심으로 투자 확대. 특히, 칩스법(CHIPS) 영향으로 미국 AI 반도체 투자 지속 전망

2 IT 서비스

- AI 붐과 향상된 컴퓨팅 및 저장 능력으로, 대형 딜 증가 전망
 - Tech 내 IT 서비스 비중 증가 추이
: 거래 건수 비중 '23년 14% → '24년 18%, 금액 비중 19% → 20%로 증가

4 통신 및 미디어

- 포트폴리오 최적화: 미래 성장 사업(데이터센터 및 위성 중심) 자금 마련 위해 수익성 낮은 자산 분리 및 매각 지속
- 트럼프 2.0에서 일론 머스크 입지 강화 및 미국 위성 주도권 확대 등으로 위성 분야 강세 전망
- 뉴미디어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 방송국 중심의 전통 미디어에서 사용자 생성 콘텐츠 중심의 뉴미디어(팟캐스트, 유튜브)로 이동 → 전통 미디어 중심으로 비핵심 자산 매각 및 뉴미디어 M&A 증가

[IT·통신&미디어] 2025년 M&A Outlook: 국내

- 트럼프 2.0에 따른 IT 전방산업(Legacy IT 제품) 수요 부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래기술 및 제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속
 - AI,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빅데이터, 보안 관련 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 M&A보다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또한, AI 역량 확보 위한 이종 업종간 전략적 제휴 증가 기대

2025년 전망 및 M&A 전략: IT·통신&미디어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Tech	<p>[반도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조한 AI 수요가 정체된 IT 시장 보완하면서, 안정적 수익창출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2.0 보편관세로 IT 수요 부진 우려, 중국의 레거시 반도체 공급 확대로 인한 범용제품 가격 하락 등 전년 대비 사업환경 일부 저하 다만, 고부가제품 중심인 AI 수요 견조하게 이어지면서 양호한 영업실적 달성을 예상 AI 산업 성장에 따라, HBM(고대역폭메모리), AI 반도체 패키징 등에 대한 투자 <p>[전기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편관세로 글로벌 IT 수요 부진 우려되는 가운데, AI 적용 전자기기가 성장의 돌파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확대에 따라 AI 적용 전자기기, 헬스케어, 스마트홈에 대한 관심 확대 	<p>AI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반도체, 반도체용 유리기판, 온디바이스 AI 기술 등 다만, M&A보다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 확보가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 <p>공급망 안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트럼프 2.0 무역분쟁 대응하여,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M&A 및 전략적 제휴/ 니어쇼어링/리쇼어링 증가
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한 과점체제 하에서 현 수준의 이익창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5G 설비 투자 감소하며, 투자 회수기 진입 → 현금창출력 확대, AI 중심 신사업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신 3사 합산 약 30여개의 데이터센터 가동 중이며, 투자 지속 전망 B2C AI 에이전트 서비스 출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제휴 등을 통해 AI 기반 사업 다각화. 관련 투자는 대부분 국내외 AI 관련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지분투자 형태 향후 양자컴퓨터 부상이 예상되는 바, 양자암호통신 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 AI에 집중하기 위해 NFT·메타버스 등의 기존 신사업은 정리 분위기 	<p>미래 기술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데이터센터, AI/로봇, 클라우드, 양자암호통신 기술 등에 대한 투자 <p>타업종과의 전략적 제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역량 확보를 위한 빅테크업체 업체 제휴 미래산업 대비 위해 모빌리티/기계 등의 이종 업종과 협업

[IT·통신&미디어] 2025년 M&A Outlook: 국내_계속

구분	업종 전망	M&A 전략
플랫폼/ 미디어/ 엔터	<p>[인터넷/플랫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심리둔화로 전방시장 어려움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각자도생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 디지털 광고시장 성장을 둔화. 채널 내에서는 속풀/SNS 등의 비중 증가 이커머스: 시장 정체되는 가운데, 상위 업체(쿠팡, NAVER 등)로의 쏠림 가속화 AI 중심의 투자 지속되며, 비핵심 사업 축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에이전트가 본격 도입되어, 검색/광고/이커머스 시장 경쟁을 부추길 전망 속풀/클라우드/웹툰에 대한 투자 vs 본업 무관한 비핵심사업 매각 및 통폐합 지속 <p>[게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게임사 영업이익 개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 파워 바탕으로 라이브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게임사 중심 영업이익 성장 게임사들의 Big & Little 전략 지속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Big 전략: Core IP의 프랜차이즈화 Little 전략: 소수지분투자 기반의 2nd-Party 퍼블리싱 등을 통한 파이프라인 강화 비용통제 기조 유지. 개발과정 내 AI 활용 증대에 따라 인건비 절감 더 뚜렷해질 전망 <p>[미디어/엔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K컨텐츠에 대한 중장기적 성장은 유효하나, '24년은 여러가지 이슈 속 성장통을 겪은 한해 '25년은 빅 스타 활동 재개, 신인 아티스트 수익화, 공연 전반 대형화에 따라 실적 개선 전망 미디어의 경우 고예산 대작에 올인하기보다 흥행 가능성 높은 일반드라마 여러 개의 유통에 집중하며, 비용 효율화에 초점을 맞출 것 	<p>포트폴리오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핵심 사업 매각 및 비용 축소 지속 새로운 채널/서비스에 대한 역량 집중 <p>AI 투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델 개발) 일부 빅테크의 파운데이션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AI 활용 여행/교육/쇼핑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발전 → 스타트업 지분 투자 및 M&A (게임 개발) AI 도입으로 개발 기간 및 비용 절감 (저작권 보호) AI 기술 활용한 자동 콘텐츠 식별 및 저작권 보호 기술 도입

Business Contacts

Deals Leader

민준선 Partner
joon-seon.min@pwc.com

Deals Deputy Leader

류길주 Partner
gil-ju.ryu@pwc.com

M&A센터

정경수 Partner
kyungsoo.jung@pwc.com

GSP그룹

곽윤구 Partner
yun-goo.kwak@pwc.com

PE그룹

이정훈 Partner
junghoon.lee@pwc.com

FS&RE그룹

한정섭 Partner
jeong-seob.han@pwc.com

MM그룹

이도신 Partner
do-shin.lee@pwc.com

헬스케어

정지원 Partner/바이오·제약
ji-won.jung@pwc.com

이승훈 Partner/바이오·제약
seung-hun.lee@pwc.com

장병국 Partner/메디칼 디바이스
byeong-guk.chang@pwc.com

IT·통신&미디어

최창대 Partner/통신
chang-dae.choi@pwc.com

이도신 Partner/미디어
do-shin.lee@pwc.com

유상문 Partner/IT
sang-moon.yoo@pwc.com

박기남 Partner/반도체
kee-nam.park@pwc.com

금융

김기은 Partner
gee-eun.kim@pwc.com

홍영관 Partner
young-kwan.hong@pwc.com

에너지·유틸리티·소재

서용태 Partner/에너지
yong-tae.seo@pwc.com

한정탁 Partner/유틸리티
jungtak.han@pwc.com

조한준 Partner/철강
han-jun.cho@pwc.com

박치홍 Partner/운송·항공
chihong.park@pwc.com

이수빈 Partner/화학
soo-bin.rhee@pwc.com

산업재 및 자동차

허제현 Partner/자동차
je-heon.heo@pwc.com

홍석형 Partner/조선
seok-hyoun.hong@pwc.com

김진 Partner/건설
jin_4.kim@pwc.com

손영백 Partner/환경
young-baek.sohn@pwc.com

홍준혁 Partner/기계
joonhyuk.hong@pwc.com

소비재

최창윤 Partner/유통·음식료
chang-yoon.choi@pwc.com

홍성표 Partner/화장품
sungpyo.hong@pwc.com

심양규 Partner/화장품
yang-kyu.shim@pwc.com

이지혁 Partner/호텔·레저
jeehyouk.lee@pwc.com

Deals Platform

류길주 Partner
gil-ju.ryu@pwc.com

김경호 Partner/Tax
gyungho1.kim@pwc.com

장유신 Partner/Consulting
yoo-shin.chang@pwc.com

김성호 Partner/Global
sung-ho.kim@pwc.com

장병국 Partner/M&A
byeong-guk.chang@pwc.com

김용현 Partner/PE
yonghyun.k.kim@pwc.com

Author Contacts

삼일PwC경영연구원

이은영 상무

eunyoung.lee@pwc.com

오선주 수석연구위원

sunjoo.oh@pwc.com

김효진 선임연구원

hyojin.h.kim@pwc.com

강수정 연구원

sujeong.j.kang@pwc.com

www.samil.com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3W-RP-027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